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지리학석사 학위논문

# '두 지역살이'의 초지역성:

유형과 전략을 중심으로

The Translocality in Dual-Location Dwelling:  
Exploring Types and Strategies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김보슬

# '두 지역살이'의 초지역성:

유형과 전략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신 혜 란

이 논문을 지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김 보 슬

김보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국문초록

‘두 지역살이’는 원래의 주거지와 떨어진 다른 지역에 주거지를 두고 두 곳을 오가며 일하고 생활하는 주거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에 고속화 교통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는 이동의 편의가 증진돼 있어,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개인들의 노력과 전략이 모여 이 같은 현상으로 발달하기 쉽다. 이 연구는 최근 사례 안에서 이러한 생활을 살피고, 이를 국내형 초지역적 거주로 개념화한다. 초지역적 거주는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관계를 발생시키며 살아가는 거주 양식으로서 이것을 행하는 거주자는 둘 이상의 거점을 거느리고 복수의 지역에 속한다. 이 연구는 국내의 두 거주지 중 한 곳을 서울 혹은 수도권에, 다른 한 곳을 그 이하 계층의 지역에 두고 그 사이를 왕복하는 수도권 참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초지역적 거주를 고찰하였다.

한 나라 안에서 행해지는 초지역적 거주로 현재 진행 중인 사례로는 일본에서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확산 중인 관계인구를 참조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 거주의 다른 나라 현황을 간략히 살폈다. 그러나 개인의 욕망과 생존전략에 연원하는 두 지역살이는 정부와 사회에서 주도하는 움직임과는 다른 출발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사례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지역살이는 주로 가족의 활동지와 직업적 활동지가 불일치하는 조건 속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두 지역 거주자는 매우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고학력 사무직·연구직 계열의 종사자이자 장년급 이상의 연령과 경력을 갖춘 사회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두 지역살이는 일련의 계급성에 기인한 거주분열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들은 거주하는 두 지역을 중요도와 소속감을 기준으로 두 단계 순위로 분류하며, 이를 결정하는 판단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가족, 재산, 직업이다. 이러한 순위 분류에 의해 두 지역 거주자는 두 거점 간 이동과 체류 비율을 조정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조정의 유형을 몇 가지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류를 통해 초지역적 거주의 구체적인

양상을 개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순위가 언제나 처음부터 명확한 것은 아니며, 두 지역살이가 지속되는 기간이나 생활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이들이 경험하는 두 지역살이의 초지역성은 크게 관계적 측면, 시간·공간적 측면, 물질적 측면으로 경험되고 두 가지 스케일의 공간전략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두 지역의 경계를 넘으며 ‘여기’에도 있지 않고 ‘저기’에도 있지 않는다는 관계적 결핍을 경험한다. 또한 두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물질적 조화를 추구하며 ‘여기’에 있는 동시에 ‘저기’에도 있다는 의식을 갖는다. 또한 이동이 주는 불안정을 상쇄하고자 ‘여기’와 ‘저기’가 아닌 제3의 공간을 통해 시간·공간적 안정과 효율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두 지역 거주자들은 일련의 공간전략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중 미시전략은 거주지 내부의 집 꾸미기로서 극히 실용적인 공간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가족이 와서 쉴 수 있는 별장과 같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거시전략은 지역사회에서 외부인인 자신을 내부인화하고자 주민들과 부단히 접촉하여 쌓아나가는 자신만의 커뮤니티 형성이다.

이와 같은 거주 방식에 이론적 틀을 제공한 초지역주의는 사회관계가 하나의 장소에 천착되어 나타나는 동시에 다른 장소들과 접합되는 국제이주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그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데에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들 속에서 두 지역살이의 실행 양상과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신규 주거 양식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3년부터 한국화된 관계인구로 생활인구 규정이 도입되어 다양한 초지역적 거주 및 새로운 인구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고찰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의성을 살려 지역 간 인구 교류를 동반하는 거주 양식에 어떤 문화적 이해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데에 기여한다.

**주요어 : 두 지역살이, 국내형 초지역주의, 초지역성, 공간전략, 거주분열**

**학 번 : 2021-23282**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제 2 절 연구 대상과 연구 질문 .....	4
제 3 절 연구 방법과 용어 .....	5
제 4 절 논문의 구성 .....	8
제 2 장 문헌연구 및 이론적 틀 .....	11
제 1 절 거주분열의 초지역성: 기존 연구와 그 한계 .....	11
제 2 절 한 국가 안에서의 초지역적 거주: 이주 이전 단계로서의 관계인구 .....	14
제 3 절 장소 경험과 초지역성: 국제에서 국내로 .....	18
1. 기존 논의들: 초국가주의와 초지역주의 .....	18
2. 이론적 틀: 경험과 전략으로서의 초지역주의 .....	20
3. 이 연구의 기여점: 개념의 적용 대상 확장 .....	23
제 3 장 사례 배경 .....	25
제 1 절 이동의 경향 변화와 초지역적 거주 .....	25
제 2 절 국내인구이동 바깥의 두 지역살이 .....	27
제 3 절 초지역적 거주를 유인하는 국내 제도 사례 .....	33
제 4 절 이동과 접목된 주거 모델 .....	35
제 4 장 두 지역살이의 발생과 유형 .....	39
제 1 절 두 지역 거주자의 발생 조건 .....	39
1. 두 지역 거주자의 분포 범주 .....	39
2. 두 지역살이 선택의 매커니즘 .....	43

제 2 절 두 지역 거주자의 유형 및 합의 .....	47
1. 우선 지역에 의한 분류 .....	47
2. 이동 패턴에 의한 분류 .....	53
<b>제 5 장 경험과 전략으로서의 두 지역살이 .....</b>	<b>57</b>
<b>제 1 절 두 지역살이 경험과 초지역성 .....</b>	<b>57</b>
1. 두 지역살이에서 재구성되는 초지역성 .....	57
2. 관계적 초지역성 '여기'에서 소외되고 '저기'에서 이탈된 연결주체 .....	60
3. 물질적 초지역성 '여기'와 '저기'가 상호보완하는 거주지 .....	65
4. 시간·공간적 초지역성 '여기'와 '저기' 사이 제3의 장소 .....	70
<b>제 2 절 공간전략으로서의 초지역주의 .....</b>	<b>74</b>
1. 전략으로서의 초지역주의와 두 지역살이의 전략 .....	74
2. 미시전략: 이동성을 뒷받침하는 집 꾸미기 .....	76
3. 거시전략: 네트워크 결절을 찾는 이웃 만들기 .....	81
4. 두 지역살이의 종료 .....	86
<b>제 6 장 요약 및 결론 .....</b>	<b>89</b>
<b>참고문헌 .....</b>	<b>95</b>
<b>Abstract .....</b>	<b>101</b>

## 표 목 차

[표 1] 면담의 주요 질문 .....	6
[표 2] 연구 참여자 목록 .....	6
[표 3] 논문의 흐름 .....	10
[표 4] 수도권-비수도권 연간 인구이동(2002~2022년) .....	26
[표 5] 국내 이동자 수 및 이동률 추이(1970~2022년) .....	28
[표 6]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 및 구성비(2018~2022년) .....	30
[표 7] 이동과 접목된 주거: 국가별 모델 .....	35
[표 8] 연구 참여자별 특징 .....	39
[표 9] 1차 거점 기준별 유형 .....	48
[표 10] 연구 참여자별 이동 양상에 따른 유형 .....	53
[표 11] 기존 연구 대 두 지역살이에서의 초지역성 .....	60

## 그림 목 차

[그림 1] 용어의 예시 .....	8
[그림 2] 생활 복선화 .....	15
[그림 3] 사회적 영향 및 체류시간에 따른 관계인구 유형	17
[그림 4]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 .....	25
[그림 5] 전입사유별 이동자 구성비(2022년) .....	31
[그림 6] 연령별 이동률(2021~2022년) .....	32
[그림 7] 목적 및 수도권에 따른 초지역적 거주 유형 ..	38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이 논문의 목적은 여행이나 일시적인 체류 이상의 진지한 일상생활을 동반하지만, 정착까지는 아닌 주거 양식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그 분석은 초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초지역주의는 개인의 이동성,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다중 소속성 등에 주목하면서 이주 네트워크 속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론이다. 그러나 국제 이주에 치우쳐 활용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그 한계점을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이론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연구의 사례는 지속적인 방문과 체류를 통해 국내의 두 지역을 매개하고 복수의 장소에서 물리적·법률적·정서적 소속 기반을 구축하는 생활 형태이다. 근래에 언론에서는 이를 체류형 인구, 복수 거점 생활자, 듀얼 라이프 등으로도 일컫기 시작했다. 분분한 용어의 등장은 해당 현상이 증가 추세임을 암시하며, 이것을 2022년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은 두 지역살이<sup>1)</sup>로 부르기로 했다.

맞벌이 주말부부는 두 지역살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직업적 성취를 추구하여 근무일에는 각자의 근무 지역에 거주하고, 휴일에는 중심거처로 돌아와 가족과 동거함으로써 거주 분열과 부분 거주가 발생한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1년 44만 가구였던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2021년 69만 7천 가구로 증가하여 두 지역 거주자가 점점 늘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귀농·귀촌 영향으로 새로운 생활양식이 추구되면서 도시탈출(구동회, 2003)이 관심을 얻게 된 이래, ‘농촌 한 달 살기’, ‘섬 한 달 살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역 학습의 기회로 삼으며 이도오촌(二都五村)·삼도사촌(三都四村) 하는 생활양

---

1) ‘듀얼 라이프(dual life)’의 다듬은 말로서 도시와 지방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두 곳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을 의미(국립국어원 새말모임, 2022. 10. 5.)

식 또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거주 양식으로서의 두 지역 살이에 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sup>2)</sup>와 같은 제도를 통해 지역과 지역이 맺는 관계를 다각화하려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에 관한 고찰은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복수의 지역을 살아가는 거주자들을 면담하고 분석한다. 이 분석은 특히 두 지역 거주자의 유형과 이들이 취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유형으로는 먼저 초지역적 거주가 등장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맥락을 살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두 지역살이는 초지역적 거주의 총체적인 지형 내에서 어디 즈음에 위치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으로 연구 사례들을 통해 우리나라 두 지역살이의 유형을 분류한다. 이 과정에서 두 지역 거주자의 발생 조건과 두 지역살이의 실행 양상은 몇 가지 특징별로 묶인다. 유형화는 현상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개별적인 연구 사례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우려가 있지만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례들 사이에서 주요한 특징들을 부각시키고 구조적인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성을 관통하는 공통점과 패턴을 개괄하기 위하여 두 지역 거주자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또한 두 지역살이의 전략을 고찰한다. 두 지역 거주자에게 초지역성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경험으로부터 파생되는 공간전략을 분석한다. 특히 미시전략과 거시전략을 별도의 항목으로 검토하여 서로 다른 스케일의 공간이 어떻게 두 지역살이 안에서 교차하는지 알아본다. 서로 다른 스케일은 거주지의 내부에서 자신만의 거점을 형성하는 실내 전략, 그리고 마을과 접촉하여 지역에 관한 경험치를 축적하는 실외전략을 포함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첫째, 이 연구는 초지역주의의 분석 단위를 국제 사례에서 국내 사례로 좁히고자 한다. 기존의 개념이 다루어 온 거시적이며 지구적인 공간을 미시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오히려 개념 확장을 이룰 수 있고, 그간의 분

---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부자가 현재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석에서 제외됐던 연구의 틈새를 메울 수 있다. 이주와 정주 외에 여행이나 출장과 같은 형태로 이동의 모습이 자유로워지면서 로컬의 의미는 변화하는 중이다. 글로벌의 대립어로서의 로컬의 의미가 쇠퇴하고 시·도 간의 미묘한 차이에서도 로컬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는 초지역적 거주를 국가 대 국가로 보았던 기존 초지역주의 관행을 넘어 한 국경안으로 초점을 이동시켜 볼 필요가 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나라 내부의 고유한 지리적 조건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스케일의 초지역주의는 연구될 가치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초지역주의의 실행 영역을 국내로 제한함으로써 그 특질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역시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내 두 지역살이의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경험과 진술을 기반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정립해 온 초지역주의의 속성이 어떤 공간을 대상으로 펼쳐지는지와 무관하게 항시적이고 고정된 속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국경 통과에 따르는 법적 절차와 비용, 지역 간 시차가 없는 우리나라 두 지역살이에서 초지역성의 어떤 부분이 강화되고 약화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초지역성이 우리나라 스케일에서 고유한 특징을 갖는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장소의 범위에 따라 초지역성이 다르게 발현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이 연구는 전략으로서의 초지역주의를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초지역주의는 ‘여기’와 ‘저기’를 모두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미 전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연구는 ‘여기’와 ‘저기’로 거주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초지역주의가 장소 경험이자 그 자체로 공간전략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두 지역살이를 보다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국내만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따르는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경험자들과의 심층면담으로부터 그 전략을 분석한다. 이로써 그 자체로 전략이면서 그 성공을 위해 또 다른 전략을 유발하는 초지역주의에 다층적으로 접근한다.

## 제 2 절 연구 대상과 연구 질문

이 연구는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며 ‘살고 일하는’ 생존전략으로서의 초지역적 거주를 고찰하고 분석한다. 가족과 재산을 돌보는 지역으로부터 동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직업을 존속함으로써 발생하는 현격한 직주 분리 및 거주분열은 실질적으로 생존과 직결된다. 휴양, 여행을 위한 정기적·비정기적 전원생활, 유럽의 여름별장 전통과는 차이를 갖는 것이다. 초지역적 거주는 그 목적과 출발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생계와 직결되는지 또는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이 거주 양식의 궁극적 목적이 직업이나 여가로 나뉜다. 또한 이 거주 양식을 선택하게 된 출발점이 개인적 열망인지 또는 사회적 제도·정책의 영향인지에 따라서는 상향식 또는 하향식 움직임으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초지역적 거주의 가장 특징적인 유형으로 세 가지가 존재해 왔음에 주목했다. 직업 활동을 위해 국내의 복수 지역에 흩어져 사는 국내 기러기 가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적 동력을 받는 관계인구·생활인구, 그리고 초국가 네트워크상에서 출신국과 정착국 모두에 속해 살아가는 트랜스(transnational) 이주가 그것이다. 광의(廣義)의 두 지역살이는 이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이 두 지역살이로 이름 붙인 영역은 국내의 복수 지역을 오가는 생활양식이며 이것에 대해 학술적 주목이 현재로서 가장 미비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협의(狹義)의 두 지역살이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고 관련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다른 유형과의 차이 속에서 그 이론적 함의를 포착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품는다.

- ① 두 지역살이의 발생 배경과 두 지역 거주자의 성립 조건, 즉 두 지역 거주자가 되는 이들은 누구인가.
- ② 두 지역살이의 명암이나 양상, 즉 그것의 실행에서 경험되는 구체적인 초지역성은 무엇인가.

- ③ 두 지역살이의 공간전략, 즉 이러한 거주양식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거나 더 원활한 거주를 이루는 데에 어떤 노력이 동원되는가.

이 연구는 최근의 구체적인 두 지역살이 사례 속에서 이것에 접근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 제 3 절 연구 방법과 용어

질적 연구 방법은 구두서술에 의존하여 사례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신혜란·진예린, 2021; MacLure, 2013)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두 지역살이를 경험한 30명을 공개 모집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저자 자신의 두 지역살이 경험<sup>3)</sup>은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면담 질문 설계 등에 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모집 대상은 당초 수도권-비수도권에 각기 한 군데씩 거주지를 둔 이들로 하였으나,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경기·인천) 사이를 오가는 일부 지원자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 희망이 있었다. 이에 ‘서울 대 비서울 수도권(경기·인천)’의 대응 관계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응 관계에는 계층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과도 면담을 진행하고 연구의 범주를 최소 한 곳의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하는 ‘수도권 참여 두 지역살이’로 정했다.

반구조화 심층면담은 생생한 일상 경험을 포착하기 위한 연구 방법(Kvale, 1996)으로서 두 지역살이의 이유, 추진 방법, 장단점 등 큰 틀을 연구자가 제시하되 나머지는 피면담자가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내용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살펴보았다. 그 후 기록을 반복하여

---

3) 연구자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울에 1차 거점을 두고 전남 신안군에서 근무하였다. 신안군의 생활권인 목포시에 2차 거점을 유지하며 주중에는 전남에서 통근하고 주말에는 서울 거주지로 돌아와 지내며 2년 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걸쳐진 두 지역살이를 지속하였다.

듣고 읽으며 여러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를 찾고 해석학적 분석(Eatough and Smith, 2008)을 진행하였다. 이때 한 면담에서 중요하게 파악된 내용을 그 다음 면담에서 재확인하는 등 면담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표 1. 면담의 주요 질문

구분	질문 내용
두 지역살이 선택의 원인·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여부 및 가족 구성원은?</li> <li>● 직업 때문에 두 지역살이를 하게 되었나?</li> <li>● 두 지역살이 결정은 자발적이었나?</li> <li>● 두 지역살이를 몇 번 경험해 보았는가?</li> </ul>
두 지역살이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지역살이의 공간적 배경이 어디인가?</li> <li>● 두 지역살이를 지속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가?</li> <li>● 이동 방법, 빈도, 회수는 어떻게 되는가?</li> <li>● 두 지역살이로 인한 이점, 불편은 무엇인가?</li> </ul>
공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 간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li> <li>● 집안을 꾸미는 데에 선호하는 방법이 있는가?</li> <li>● 친목활동, 단골공간 찾기 등 적응 노력은 무엇인가?</li> <li>● 장소성과 이동성을 어떻게 구축했는가?</li> </ul>
인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 관해 달라진 생각이 있는가?</li> <li>● 수도권이 두 지역살이에 영향을 미치는가?</li> </ul>

표 2. 연구 참여자 목록

참여자	현 직업	연령	결혼 여부	동거 가족 (기존 거주 지역)	주거 형태 (확장 거주 지역)
A	교직자	40대	미혼	없음	자가
B	공연연출가	50대	기혼	배우자, 자녀	자가
C	교직자	40대	기혼	배우자, 자녀	임차
D	교직자	40대	미혼	부모	임차
E	연구원	30대	미혼	부모	직장 기숙사
F	사업가	50대	기혼	배우자, 자녀	부모 거주지
G	문화기획자	40대	이혼	없음	부모 거주지
H	교직자	40대	기혼	배우자, 자녀	임차

I	특수공무원	50대	기혼	배우자, 자녀	임차
J	공무원	30대	미혼	없음	부모 거주지
K	특수공무원	60대	기혼	배우자, 자녀	임차
L	청년기업가	30대	기혼	배우자	공공지원 프로그램
M	독립연구자	40대	기혼	배우자	임차
N	사업가	40대	기혼	배우자	임차
O	교직자	40대	기혼	배우자, 자녀	임차
P	문화기획자	30대	미혼	없음	부모 거주지
Q	언론홍보인	40대	미혼	친척	자가
R	사업가	40대	기혼	배우자	자가
S	디자이너	30대	기혼	배우자	자가
T	정책전문가	50대	기혼	배우자, 자녀	임차
U	교직자	40대	기혼	배우자, 자녀	부모 거주지
V	예술감독	50대	기혼	배우자, 자녀	임차
W	교직자/작가	40대	미혼	없음	임차
X	작가/학예사	30대	미혼	부모	아티스트 레지던시
Y	예술강사	30대	미혼	약혼자	임차
Z	교직자/작가	30대	기혼	배우자, 자녀	임차
AA	교직자	40대	기혼	배우자	임차
AB	연구원	40대	기혼	배우자, 자녀	임차
AC	공무원	40대	미혼	없음	임차
AD	회사원/학생	30대	미혼	부모	임차

또한 연구 내용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임의의 용어를 도입했다. 먼저, 발생 순서에 따라 두 지역살이 이전에 살았던 지역을 ‘기존 거주 지역’, 두 지역살이로 인해 추가된 거주 지역을 ‘확장 거주 지역’으로 명명한다. 예컨대 서울에 살고 있던 거주자가 대구에서 취업

하여 추가 거주지를 대구에 개설하고 두 지역살이를 시작하는 경우, 서울은 기존 거주 지역, 대구는 확장 거주 지역이 된다. 이는 일반적인 이주에서의 출신·정착에 의한 지역 구분이 두 지역살이에는 부재하므로 거주 지역이 확장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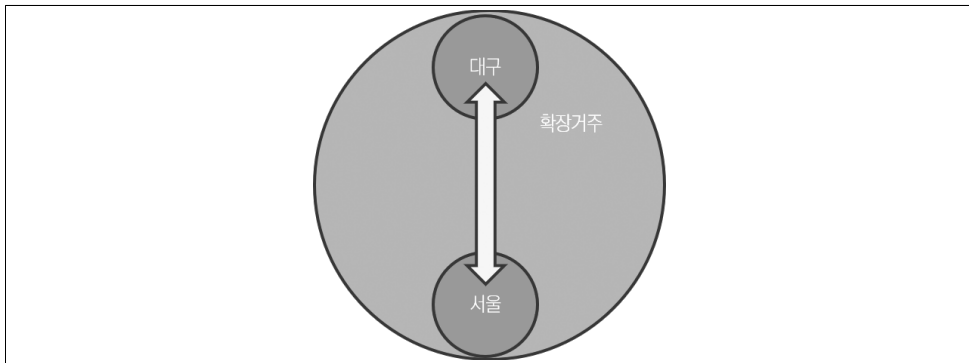


그림 1. 용어의 예시: 기존 거주 지역(서울)과 확장 거주 지역(대구)의 관계

아울러, 연구 참여자의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1차 거점’, 덜 높은 곳을 ‘2차 거점’으로 정한다. 참여자들은 나름의 이유에 의해 두 거주지에 순위를 매기고 메인(main)과 서브(secondary)로 나누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차와 2차 거점의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재조정됨을 확인하였다.

## 제 4 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두 지역살이가 참조할 수 있는 선행 논의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첫 번째 절에서는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돼 온 그간의 초지역성 연구와 주거분열에 관련한 연구의 현황을 점검한다. 두 번째 절에서는 지역과 지역을 잇는 일본 관계인구 개념의 시사점과 한계를 살피고 관계인구와의 비교를 통해 두 지역살이의 독특한 위치를 밝힌다. 세 번째 절에서는 국제 이주 분야에서 발전돼 온 초지역주의의 내용을 소개한 뒤 이것의 분석 스케일을 국내로 돌려 두 지역살이의 임의적 정의를 ‘국내형



초지역주의'를 따르는 거주로 한다. 또한 연구의 사례가 경험과 전략으로서의 초지역주의를 분석틀로 하는 이유를 '장소 렌즈'와 관련지어 밝히고, 연구의 기여점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연구 사례를 둘러싼 포괄적 지형을 살펴본다. 첫 번째 절에서는 그간의 국내 인구이동 경향을 검토한 뒤 두 번째 절에서는 이것이 두 지역살이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이어지는 두 절에서는 현재 지역 인구 교류를 촉진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알아본 뒤 다른 나라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인 초지역적 거주 모델의 대표적인 몇 가지로 요약한다. 이로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거주 형태들과 두 지역살이에 영향을 준 사회적 영향을 개괄할 수 있다. 4장과 5장은 본 논문의 본론으로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4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초지역 거주 유형과 양상을 고찰하여 누가 두 지역 생활자가 되는가를 규명한다. 첫 번째 절에서는 여러 가지 초지역주의 거주 유형들 사이에서 이 연구의 관찰 대상은 어디 즈음에 위치하는지 살펴보고, 이 영역에 속하는 두 지역 거주자들의 특징을 통해 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집단의 구간을 밝힌다. 두 번째 절에서는 이들의 지역 간 이동이 보이는 특징을 찾고, 두 지역에 부여하는 서로 다른 중요도 및 소속감에 따라 유형을 나눈다. 5장에서는 두 지역살이에서 경험되는 초지역성,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공간전략을 살펴본다. 첫 번째 절에서는 두 지역살이의 특징적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 기존의 초지역성이 각각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파악한다.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동시에 결핍되는 관계적 측면, 생활비가 증가하고 물자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두 거점을 동시에 지배하게 되는 물질적 측면, 일상이 둘로 분할되면서 일련의 효율을 가져오면서 더 많은 균형과 안정을 모색해야 하는 시간·공간적 측면에서 초지역성의 특정한 부분들이 새롭게 부각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확장 거주 지역에서 집 꾸미기, 이웃 만들기 등의 공간전략을 취한다. 이것을 통해 두 지역살이가 어떻게 자기영역화되고 지역과 접속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주거 양상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한다.

표 3. 논문의 흐름

<p>목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li> </ul>
<p><b>서론</b></p>	
<p>1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배경과 목적</li> <li>• 연구 대상과 연구 질문</li> <li>• 연구 방법과 용어</li> <li>• 논문의 구성</li> </ul>
<p><b>문헌연구 및 이론적 틀</b></p>	
<p>2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연구의 한계점</li> <li>• 한 국가 안에서의 초지역적 거주</li> <li>• 장소 경험과 초지역성(기존 분석 스케일의 확대·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논의 및 이론적 틀 검토, 연구의 기여점 제시</li> </ul> </li> </ul>
<p><b>사례 배경</b></p>	
<p>3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의 경향 변화와 초지역적 거주</li> <li>• 국내인구이동 바깥의 두 지역살이</li> <li>• 초지역적 거주 관련 국내 정책 사례</li> <li>• 이동과 접목된 주거 모델</li> </ul>
<p><b>두 지역살이의 발생과 유형</b></p>	
<p>4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지역 거주자의 발생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지역 거주자의 분포 범주와 선택의 매커니즘 파악</li> </ul> </li> <li>• 두 지역 거주자의 유형 및 함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지역 거주자의 우선 지역 및 이동 패턴에 의한 분류</li> </ul> </li> </ul>
<p><b>경험과 전략으로서의 두 지역살이</b></p>	
<p>5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지역살이 경험과 초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지역살이의 국내 스케일에서 재구성되는 초지역성</li> <li>- 관계적, 물질적, 시간·공간적 측면에서의 초지역성 경험</li> </ul> </li> <li>• 공간전략으로서의 초지역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으로서의 초지역주의와 두 지역살이</li> <li>- 거시적·미시적 차원으로 맥락화된 초지역주의 세부 전략</li> </ul> </li> </ul>
<p><b>결론</b></p>	
<p>6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요약</li> <li>• 연구의 의의</li> </ul>

## 제 2 장 문헌연구 및 이론적 틀

### 제 1 절 거주분열의 초지역성: 기존 연구와 그 한계

현재 두 지역살이와 관련된 연구는 지리학 분야에서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기러기아빠와 주말부부는 대체로 사회복지학이나 가족학 연구에 치우쳐 이루어졌다. 분거가족의 생활의 질(김성숙, 2006; 김광기, 2009), 또는 분거가족 구성원의 가족 관리(김슬기·최형재, 2020)와 같은 가족적 측면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거주 양식으로서의 두 지역살이 양태에 관한 관심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복수의 지역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관계 맺는 현상은 거주보다 ‘이주’를 열쇠말로 삼으며 주로 국제 이주 연구 안에서 주목받아 왔다. 이동의 다방향성, 이주지가 생성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은 국경을 초월하는 이주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활발히 연구돼 왔으며(Schiller et al., 1992; Sassen, 1988; Levitt and Schiller, 2004; Collins, 2012; Shin, 2018) 초지역주의(translocalism)<sup>4)</sup> 이론을 성장시켰다.

초지역주의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로컬들의 상호작용과 연결성에 초점을 맞춘다. 초지역주의는 1990년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를 중심으로 인류학에서 출발했으나 흐름으로서의 글로벌, 고정된 장소로서의 로컬을 매개하는 특징으로 인해 지리학, 특히 이주 연구와 도시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졌다(Massey, 1994; Rapport and Dawson,

---

4) translocal, translocalism, translocality는 일반적으로 각각 초지역적인, 초지역주의, 초지역성 등으로 번역된다. 여기에 들어 있는 한자 초(超)는 광범위한 스케일, 경계 넘나들기/가로지르기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이영민, 2013)는 다른 한자 문화권에서 ‘trans-’가 타님을 과(路), 또는 넘을 월(越)로 옮겨진다는 사실로부터 이 트랜스의 핵심이 경계 넘기에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해석을 참조한다. 스케일의 광범위성을 지칭하는 일반적 맥락에서 ‘초지역(超地域)’, ‘초국가(超國家)’을 사용하되, 경계 넘나들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원어 그대로 ‘트랜스’를 살린다.

1998; Carpentier, 2007; Brickell and Datta, 2011; Weisskoppel, 2013, Andersson Djurfeldt, 2021). 초기의 초지역주의 연구의 가장 주목할 만한 공헌은 일방적인 관점을 넘어 이동을 이해하고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복잡한 맥락과 다방향적 관계로 관심을 돌린 것이다. 이는 이전의 이주 연구에서 이주자들과 그들의 고향 공동체 사이의 지속적인 연결과 상호작용을 간과한 채 출신지에서 새로운 목적지로 향하는 일방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대조된다. 이에 Schiller(1992)는 이주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틀로서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개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이주의 전통적 개념은 더 이상 국경을 넘어 사는 사람들의 경험을 포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필리핀에서 국가적으로 구조화되고 공식적으로 승인된 이주자 교류 시스템과 경제 활동을 통해 지속되는 가족 관계에 주목했다. Mitchell(1994)은 이주자의 삶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적, 경제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초지역’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주자의 정체성과 서사가 출신국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않는다고 주장했고, 특정 장소나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 창출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초기의 초지역주의 관점 형성에 참여했다. 2000년대에 들어 초지역주의 연구는 이주 노동 및 문화 접변의 사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주 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 관점을 취하는 대신 특정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초국가주의와 전통적인 지역주의 이론에서 벗어나 세계화의 영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였다. Ma(2002)는 홍콩 지하 밴드 연습실에서 드러나는 다국적 공간 재현을 설명하기 위해 초지역주의를 사용했다. 이 연구의 사례가 된 밴드 연습실들은 해외에서 들어온 하위문화가 지역에 영향을 끼친 흔적이면서 국경을 초월한 자본주의에 지역이 저항하는 수단임 보여준다. Moskal(2015)은 일자리를 위해 스코틀랜드로 건너온 폴란드 이주민의 자녀들에게서 발견된 집에 대한 정의와 정서를 보여줌으로써 이주 아동들의 이동 경험을 고찰했다. 이 아동들의 가정에 대한 개념이 출신국과 정착국 모두에 걸친 애착에 기반하고 있으며 두 나라의 이미지가 이들의 장소의

식에 통합되어 있음을 분석했다. 특히 이주 아동의 구술적 내러티브, 주관적 지도 그림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로컬-로컬의 결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초지역주의는 이주민이 정착지에서 획득한 물질 자원을 고국의 가족에게 송금하여 재배치시키거나 가족의 연쇄이주를 유발하여(정현주, 2010; Zapata, 2018; Li et al., 2019; Ajefu and Ogebe, 2019) 출신국과의 연결을 지속하고, 이주지에서 다른 이주민 및 비이주민과 접촉하여 그 연결망을 다시금 연결·확장하는 과정(Greiner, 2010; Shin, 2017; Lubbers et al. 2020)에도 주목해 왔다. 그러한 관점의 뿌리에 가장 근본적 토대를 제공한 Sassen(1988)은 세계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이 가지는 관계를 천착했다. 그는 또한 세계적 상호연결성의 증가와 기술 발전이 국경과 지역을 넘어 자본을 형성하고 자본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탐구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중요성은 세계화의 맥락에서 노동과 자본의 이동과 그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역학이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결과를 조명한 데에 있다. 이는 현대 세계에서 노동과 자본의 불균등한 지리에 관해 논의하는 데에 초지역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De Haas(2010)의 경우 초국가주의가 송금 경제와 개발학적 입장에 치중한 나머지 이주를 가계 생계전략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초국가주의의 제한된 관점에서 “송금은 소득 위험을 분산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낙오된 사람들의 열망”으로 비취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이주에서의 상호작용에 발생하는 공간적·시간적 이질성의 원리가 무엇인지로 분석의 주제를 전환할 수 있는 초지역주의의 역할과 필요성을 시사한다.

초국가주의가 정착지-출신지 사이의 초월적 구조를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조명했다면 이것에 지역 대 지역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게 초지역주의의 특징이다. 일련의 국제 이주에 대한 선행 연구(이영민, 2013; Faist, 2000; Levitt and Schiller, 2004)는 초국가주의에 내재된 국민국가 개념의 한계를 초지역주의로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이런 데 착안한 본 연구는 초지역주의를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이 지역에 속하는 동시에 저 지역에 속하는’ 국내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내의 두 지역살이를 초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초지역성 연구는 한국과 다른 나라의 두 거점(이영민, 2012; Li et al., 2019)에 국가 대 국가의 관점을 적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국내에서의 이동은 비자발급·입국심사 같은 규제가 없고, 이동경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시차나 계절차가 없어서 초국적 공간에서의 이주와는 차이를 지닌다. 구동희(2004)는 일본의 두 지역 거주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도시탈출과 세컨드홈 형성, 그로부터 관찰되는 생활양식 변화를 분석하였으나 후속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고 발표된 지 오래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형 초지역주의 거주 분석은 아직 본격화 이전의 단계라고 판단된다.

## 제 2 절 한 국가 안에서의 초지역적 거주: 이주 이전 단계로서의 관계인구

기존의 생활양식을 해체하지 않고 거처를 옮기는 행위를 ‘이사’라고 한다면 생활양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따르는 거점 이동은 ‘이주’라고 할 수 있다(장민영, 2022; 嵩和雄, 2017에서 재인용).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이사는 ‘사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으로, 이주는 ‘개인이나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함’으로 풀이 되며, 이민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즉 국제 이주를 지칭한다<sup>5)</sup>. 따라서 이주는 생활기반을 옮김에 따라 새로운 지역에서 주거와 일자리를 구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을 넓혀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정섭 외, 2018).

관계인구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인구 이론이다. 균형 있는 지방 발전을 위해 도시민의 농촌 정주 촉진을 고민하던 일본은 두 지역에 걸친 생활복선화(황정임 등, 2010)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지내는 이지역거주(二地域居住)가 이주·정주의 이전 단계일 가능성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

5) 표준국어대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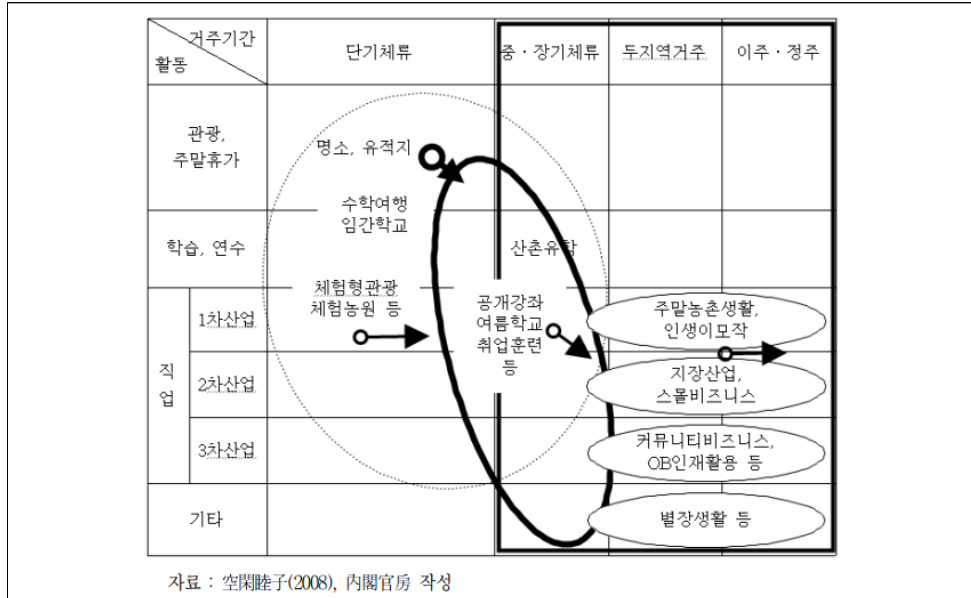


그림 2. 생활 복선화(황정임 등, 2010, p. 458)

이러한 관심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급격한 지방인구 감소를 경험한 일본의 과소지역 대응책으로부터 기원한다. 2014년 「마스다 보고서」<sup>6)</sup>가 일본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이정환, 2017; 김현호, 2021) 지방 이주 논의가 전면적으로 확산되었고 일본 언론은 이지역거주를 논하는 과정에서 ‘관계인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Tanaka, 2021). 일본 국토교통성이 도입한 제1기 지방창생정책(2015~2019년)이 지방으로의 U턴, J턴, I턴과 같은 유형별 인구 이동 흐름 만들기를 기본목표에 포함시킨 데에 이어 제2기 지방창생정책(2020~2024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였다. 지역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을 강화하여 지방과의 연계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보강하고, 다양한 정책인구를 지역발전에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2021). 이때 체류인구, 정주민구 외에 관계인구가 중점적으로 등장한다. 차미숙(2021)에 따르면 일본의 관계인구는 ‘이주나 관광이 아니라, 일상생활권과 통근권 이외에 특정 지역과 계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6) 지방소멸(地方消滅)이란 용어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増田實世)로부터 유래했는데, 2014년 일본창성회의 인구감소문제검토분과회(人口減少問題検討分科会)를 통해 그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ストップ少子化・地方元気戦略)」은 일명 「마스다 보고서」로 불린다.

관계를 맺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즉, 기존의 지방 이주와 같이 생활기반을 완전히 옮겨 급격한 변화를 감행하거나 현저한 기회비용을 감수하지 않고도 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된 개념인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지역과 거의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대중 관광객과 지역에 장기간 머무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을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지뜨 드 프랑스(Gîtes de France)<sup>7)</sup>는 관계인구의 특징에 착안한 농촌관광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 창설 배경에는 지역 활동에 만족도가 높아 자발적인 재방문을 택하는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지역에 오래 머물며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행위가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또한 프랑스는 지방 교부금 차등지원 산정 기준에 정주인구뿐 아니라 지역 내 캠핑트레일러 주차장수, 지역 내 이차주거지 보유자수를 포함해 체류인구와 관계인구를 각각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행정안전위원회, 2021).

한편 Tanaka(2021)는 지역에 관여하는 정도나 체류시간에 따라 관계인구를 크게 열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에는 실험이주, 두 지역(복수) 거주, 같은 지역에 반복 방문, 지역행사 개최, 지역기업의 도쿄지사 근무, 먹거리 판매로 도쿄-지역 연결하기 등이 포함된다.

---

7) Federation Nationale des Gites de France, 프랑스 민박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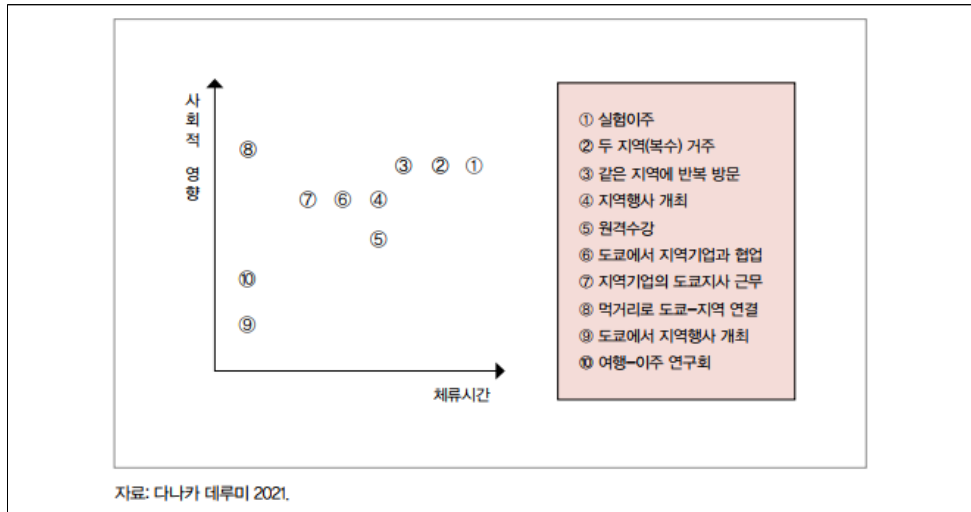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영향 및 체류시간에 따른 관계인구 유형

이 중에서 두 지역(복수) 거주는 중국에 이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예비 이주로 기능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및 타 지역과 동시에 관계 맺으며 정주가 요구하는 부담을 서서히 완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래의 거주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역에 이차주거지를 마련하여 양쪽에서 번갈아 지내며 일종의 유사거주(類似居住) 양식을 취한다는 측면이 바로 본 연구가 조명하는 두 지역살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관계인구는 지역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관심을 우선으로 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민간 주도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지방의 소멸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관심에 뿌리를 둔다. 반면, 본 연구의 두 지역 거주자들은 사회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로 등장한 집단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연구기관, 기업의 일자리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전한 여파로 두 지역 거주자들이 증가했을 수 있으나 지방 이전 정책의 본래 목적은 두 지역살이 촉진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동반 이주를 꾀하고 수도권 인구 분산을 통해 지역으로의 장기적인 인구 유입 효과(남창우, 송인호, 2020)를 끌어낸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것이 두 지역살이를 촉발했다면 오히려 정책의 본래 목적이 실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일본의 관계인구와도 차별되는 점이다.

관계인구가 의도적으로 발명된 ‘위로부터의’ 개념이라면, 두 지역살이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아래로부터의’ 경험이며, 관계인구와 두 지역살이 간에는 공식성과 비공식성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이 뚜렷한 구분으로 인해 표면적 실행 면에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관계인구가 본 연구의 이론적 틀로 적합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본은 관계인구를 통해 지역과 지역의 경계가 유연해지는 효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초지역주의의 이동성과 다공성(이영민, 2012)이 국제 이주에서만 아니라 한 국경 안에서 발현되고 유지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 제 3 절 장소 경험과 초지역성: 국제에서 국내로

#### 1. 기존 논의들: 초국가주의와 초지역주의

초지역주의와 초지역성(translocality)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로컬들의 상호작용과 상호연결성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초지역성의 정의는 Smith(2001)에 따르면, 사회관계가 하나의 장소에 천착되어 나타나는 동시에 다른 장소들과 접합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초지역주의는 그렇게 서로 다른 지역들을 접합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주 양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삶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이주민의 이동성과 네트워크가 사회적, 공간적 관행을 형성하는 데 있어 서로 얽혀 있음을 강조한다. Appadurai(1996)가 주장한 것처럼 이주민은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경계를 초월해 새로운 사회적 영역을 만들어간다. 새로운 땅에 뿌리내린 이주민은 출신지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는 대신 출신지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온 다른 이주민들과 교류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네트워크가 이주의 실체로 인식된 이래 국제 이주는 국경을 초월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돼 오며(Ley, 2004; Faist, 2008; Gielis, 2009; Collins, 2012; Zapata, 2018; Shin, 2020)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을 핵심

어로 등장시킨다.

‘초국가’와 ‘초지역’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인 맥락과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상호교체 가능하다. 서로 다른 지역들을 접합화시키는 이주의 기능을 지목하는 두 용어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용어에 들어있는 ‘trans-’, ‘초(超)-’가 각기 국가 대 국가, 지역 대 지역의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경계를 규정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주 연구의 대체적 흐름에서 시간상으로 먼저 등장한 경향은 초국가주의이다. 초국가주의는 1980년대 프랑스 기술철학 분야에서 등장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의 영향을 받아 행위, 구조, 관계의 복합적 관점 하에서 이주 체계를 분석하였다(최병두, 2017). 초국가주의가 국제 이주 연구의 핵심적 분석틀로 떠오른 이후 국경을 넘는 주체의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의 복잡하고 다방향적인 흐름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초국가주의는 초기에는 사회과학 전반에서 국제 자본과 노동의 송출국-유입국 관계를 규명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 지리학에서 또한 이주자와 그 가족이 본국의 자원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어떻게 다시 보내는지 등 지리적 변화를 분석하는 이론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세계화 현상을 배경으로 강화된 기업의 초국적 활동, 일자리를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자들의 행위를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바라본 연구들에서 확인된다(Samers, 1999; Guarzino, 2003; Zapata, 2013; Zapata, 2018). 초국가주의적 관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연구 중 하나로 Portes(198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는 비록 ‘트랜스내셔널’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마이애미(Miami)의 쿠바 망명자들이 형성한 고국과의 사회적·문화적 연결망과 이것이 민족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초국가주의의 넓은 이론적 틀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Sassen(1988)은 글로벌 금융 시장의 출현과 국제기구의 성장이 초국적 노동 이주라고 부르는 새로운 유형의 이주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했음을 주장하여 이주 연구에서 초국가주의 및 세계화에 대한 후속 논의가 형성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로 들어서며 Schiller(1995)는 학문과 국경을 넘어 학자들 사이에 더 많은 협력과 교류를 촉구하며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던 초국가주의 연구를 발전시켰고 Schiller et al.(1992)의 연구는 이주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적 틀로서의 초국가주의를 본격

화했다. 이주를 ‘출신지에서 정착지로의’ 일방통행 과정으로 보았던 전통적 이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출신지와 정착지의 연결이 국경을 초월하여 유지되고 확장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이어 등장한 초지역주의는 국경이라는 고정된 분석 스케일에 도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범주에서의 이주 관행과 이주민의 정체성으로 그 시야를 확장했다. 이는 초국가주의의 성과를 한층 발전시킨 결과다. 이주가 단순히 국경을 넘는 일련의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구성 요소 및 정체성을 생성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Schiller, Basch and Blanc-Szanton, 1995)이라는 전제에 더불어 이주자들의 사회적·정치적 지형을 지역 단위에서 검토하는 패러다임이 마련된 것이다. 초지역주의는 거시적 수준의 이주와 개발을 미시적 수준의 그것으로서 바라보도록 전환점을 마련한다. 초국가주의에서 이주가 소득 위험을 분산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여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집단의 의도적인 시도로 파악된 것처럼(De Haas, 2010) 초지역주의 역시 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해 출발한다. 송금 경제와 노동 약자의 현실을 고려한 초지역주의 연구는 국가들의 국제적 관계 바깥에 있는 지역적 맥락에서도 이주가 가계의 생계 전략이며 행위자의 열망에 기반함을 드러냈다(Massey et al., 1998; Brickell and Datta, 2011; Ajefu and Ogebe, 2019).

한편 Dirlik(2010)은 초국가주의, 초지역주의, 전지구화는 모두 경계 연구에서 등장한 개념이지만 이 중에서 초지역주의가 가장 적극적으로 땅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초국가주의는 국민국가의 추상적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전지구화는 국민국가를 초월하려는 충동으로 인해 땅에서 유리되는 데에 반해 초지역적인 관계들은 국가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우회하는 가장 하부에서의 상호작용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초지역성은 국경뿐 아니라 그 이하의 도시와 마을 등 하위의 경계들을 침투하고 장소들을 서로 연결한다.

## 2. 이론적 틀: 경험과 전략으로서의 초지역주의

그러나 이 연구는 국경을 초월하여 장소가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현상을 국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데에서 초지

역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국경을 초월하던 초지역주의의 특징이 한 국가 안 이동에서도 경험과 전략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국토에서의 초지역성은 다른 국가로의 방대한 거리와 막대한 이동 비용을 극복할 필요 없이 가까이에 있는 여러 장소를 동시에 지배하고 조정하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이것은 국내의 초지역적 거주가 네트워크보다 장소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음을 환기한다.

1990년대 이후 로컬에 대한 관심이 상승한 것은 사회과학 전반에서 공간적 또는 장소적 전환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 속에서 초지역주의는 이주자의 삶의 장소를 분석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대표적으로 Massey(1994)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원거리에서도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점점 더 연결되는 현대 사회의 특수성으로서의 초지역주의를 밝히려 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초지역주의는 단순히 물리적 이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을 건너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관계를 관장하고 조정하는 다차원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교통수단과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늘날의 장소는 다른 지역과의 관계성 및 그것을 연결하는 이동성에 그 성격을 의존함으로써 독립적인 위치와 고유한 주민 문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Cresswell, 2004). 이주의 장소는 이주로 인해 그곳에 유입된 사람들과 문화가 한 데 집합하여 형성되는 장소이면서, 그들의 상호작용에 힘입어 이주자가 제3의 장소로 연결되는 도약대이기도 하다. Gielis(2009)는 여기에서 종래의 ‘연결망 렌즈(network lenses)’를 ‘장소 렌즈(place lenses)’로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을 도출하면서 장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작업을 펼쳤다. 그는 초지역성을 떠받치는 인적 교류의 원리를 추적하는 데에는 연결망 렌즈가, 그리고 이주자 및 그를 둘러싼 물리적 장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장소 렌즈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주지를 분석하는 데에 이 둘을 균형 있게 참고해야 하고 각기 다른 고유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연결망 렌즈는 이주자 네트워크 내부에서 자발적·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초지역적 연결 구조로서 이민자들이 서로의 정착을 돕기 위해 구성하는 민족중심 결집체, 종교 공동체, 비즈니스 협력체와 같은 비물질적 현상을 들여다보는 도구다. 반면 장소 렌즈는 외부에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드러난 민족적 거리 경관, 집·가게 꾸밈, 야외 행사와 같은 물질적 현

상을 들여다보는 도구다. Massey(1994)가 런던의 킬번 거리(Kilburn Street) 하나를 묘사하는 데에만 지구의 절반 가까이가 얽혀 들어간다고 했던 것은 지극히 지역적이고 일상적인 공간 깊숙이까지 수많은 이국적 기표들을 작동시킨 초지역성을 가리킨 것이라 할 수 있다. Gielis(2009)는 이전의 이주 연구에서는 연결망 렌즈에 의한 네트워크 분석에 비해 장소 렌즈를 통한 공간전략 분석과 통찰이 미진했음을 지적하며, 관계 내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연결망 렌즈로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충분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연구는 두 지역 거주자의 발생 배경과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연결망 렌즈를, 두 지역살이의 공간전략을 관찰함으로써 장소 렌즈를 실현하였다. 두 지역살이가 등장하는 매커니즘과 생활방식으로서 자리 잡는 배경은 두 지역 거주자의 활동 특성, 가족 형태, 교육 수준 등의 사회적 위치를 통해 파악되었다. 이것은 두 지역살이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광범위하게 살펴본다는 점에서 연결망 렌즈를 통한 접근이다. 또한 두 지역 거주자가 기존 거주 지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져 관계의 결핍을 경험하고 확장 거주 지역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개척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 역시 연결망 렌즈에 의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이동은 국제적인 이동과 달리 이동 거리가 짧고 이동 빈도가 높다. 이것은 두 지역살이를 기점으로 이들이 연결망에서 겪게 되는 환경적 변화가 국제 이주에서만큼 극단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활동 반경이 이전보다 넓어지고 기존의 관계에서 멀어진다고 해도 그 관계는 느슨하게나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높은 이동의 밀도는 두 곳의 거점 사이의 분리를 약화시킨다. 두 거점을 6개월 주기로 번갈아 거주하는 것과 3일 주기로 번갈아 거주하는 것은 매우 다른 장소 경험과 공간전략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두 지역살이에서 장소가 가지는 의미는 국가 단위 이동에서와는 다를 것이며, 이를 추적하기에 적합한 시선은 장소 렌즈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 3. 이 연구의 기여점: 개념의 적용 대상 확장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초지역적 거주를 행하는 참여자의 유형을 파악하여 초지역주의의 지평을 넓혔다. 국가 대 국가의 거시적인 지역 이동에는 시차, 경비 부담, 출입국 절차 등으로 연결이 지연되거나 이를 보완하는 또 다른 연결이 촉발되지만, 분석 단위를 국내로 좁히면 새로운 특징이 발생한다. 두 거점을 거의 동시에, 그리고 한꺼번에 살아가는 두 지역살이에서는 나름의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장소 중심의 초지역성이 경험된다. 따라서 거주와 이동의 무대를 국내 사례로 좁힘으로써 새로운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조건을 통해 국내형 초지역주의 개념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내의 초지역적 거주에 어떤 이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는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밝혀 학문적 활용 범위를 새로 구축하고 이론적 가치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둘째,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 종류의 초지역성으로 확인하였다.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한 실증적인 관찰과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기존의 초지역성이 두 지역살이에서 새로운 경향으로 재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로부터 도출된 초지역성의 속성은 크게 연결성, 다중중심성, 시-공 압축성, 참여자 다양성,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지역살이에서는 이러한 속성들이 새롭게 조합되어 두 지역살이 경험의 특정한 영역들을 대표하는 세 가지 초지역성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초지역성이 고정된 성격을 갖지 않고 분석 스케일에 따라 고유한 특징으로 발현될 수 있으며, 분석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전략으로서의 초지역주의를 여러 범주에서 검토하였다. 초지역주의는 ‘여기’와 ‘저기’를 모두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이미 전략적 접근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명하고 그것을 보다 잘 해 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전략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석하였다. 두 지역살이의 전략은 크게 미시전략과 거시전략으로 나뉜다. 이동성을 뒷받침하는 집 꾸미기로서의 미시전략은 주로 실내 공간에 적용되며, 네트워크의 결절을 형성하는 이웃 만들기는 대부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서로 다른 스케일의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두 지역살이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초지역주의 기존 적용 범위를 국내로 좁힌 것은 이론의 활용 가능성을 오히려 넓힌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동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 사이의 경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사람은 국가 간 이동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회와 변화를 모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지역주의의 작동 배경을 국제에서 국내로 전환하고 그 둘을 서로 연결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학술적 기여와 더불어 이 연구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COVID-19와 같은 전 지구적 공동 위기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이동 양상의 변화는 국내에서의 거주 방식에서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한 시대적 변화 중 하나로서의 두 지역살이에 관해 문화적 해석, 행정적 지원이 논의될 수 있도록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은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일 것으로 기대한다.



## 제 3 장 사례 배경

### 제 1 절 이동의 경향 변화와 초지역적 거주

그간 우리나라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왔다. 특히, 대학 진학이나 첫 직장의 시기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일반적이다. <그림 4>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인구의 증가와 앞으로의 추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학력과 경력을 쌓고 가정을 꾸리는 보다 성숙한 연령대에 이르러서는 그와 반대로 새로운 생활 환경과 일자리 탐색, 전근, 귀농 등을 위해 지방으로의 이동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다 워라벨(work life balance) 및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세컨드하우스 마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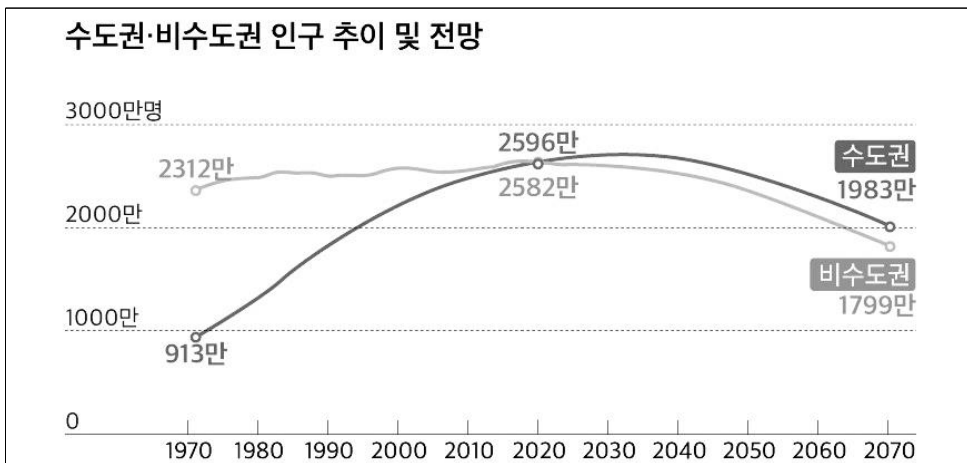


그림 4.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2020년), 출처: 통계청

권상철(2005)은 1980년대까지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이 지속되다

가 그 이후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규모와 비율이 점차 줄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오히려 증가세로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인구 이동의 양보다 인구 교환의 질이라는 측면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용규(2012)는 2011년을 기점으로 이촌향도에서 이도향촌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며 지역 간 인구가동의 최신 세 가지 특징 중 한 가지로 ‘탈(脫) 수도권’ 경향을 들었다. <표 4>에서처럼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비수도권 연간 인구가동은 수도권 내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도시와 전원 모두에 접근성이 좋은 인천이나 서울 외곽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2년부터 20여 년간 ‘비수도권 → 수도권’ 이동이 둔화되고 ‘수도권 → 비수도권’ 이동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수도권-비수도권 연간 인구가동(2002~2022년), 출처: 통계청  
(단위: 천 명, %)

연도	이동자 수(천 명)					구성비(%)				
	계	수도권 ↔ 수도권	비수도권 → 수도권	수도권 → 비수도권	비수도권 ↔ 비수도권	계	수도권 ↔ 수도권	비수도권 → 수도권	수도권 → 비수도권	비수도권 ↔ 비수도권
2002	9,584	4,683	625	416	3,860	100.0	48.9	6.5	4.3	40.3
2007	9,070	4,383	579	496	3,613	100.0	48.3	6.4	5.5	39.8
2012	7,507	3,494	475	468	3,070	100.0	46.5	6.3	6.2	40.9
2017	7,154	3,324	447	431	2,953	100.0	46.5	6.2	6.0	41.3
2022	6,152	2,820	423	386	2,523	100.0	45.8	6.9	6.3	41.0

이러한 해석에서 비록 직접적으로 포착되지 않지만 탈 수도권 경향은 새로운 거주 방식과 교차한다. 서울이나 수도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는 대신 두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번갈아 체류하는 부분 이주 때문이다. 이들은 다양한 집단과 지역 사이에서 공존하면서 지역을 초월하는 ‘초지역’을 경험하고 실천한다. 초지역적 거주 예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러기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우리나라

안에서 떨어져 지내는 경우이다. 자녀의 조기 해외유학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처럼 주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근무 지역에서 지내는 비동거 가족을 뜻한다. 이들의 분거는 지속적이고 완전한 공동주거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다(한유미, 2004; 김주현·송민경·이현주, 2010). 특히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에서의 취업으로 인해 이들은 주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적 이유에서 맞벌이·홀벌이 주말부부로 활동한다.

둘째 지역교류를 위해 제도적으로 창안된 ‘생활인구’다. 생활인구는 2023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민등록상의 거주자뿐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이는 주민등록지만을 기준으로 한 거주 중심에서 인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 중심으로 인구 관점을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생활인구 개념은 일본에서 과소지역 정책으로 제안된 관계인구 개념의 한국적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트랜스 이주’는 국제 기러기 가족,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등에 의해 형성된 트랜스로컬 네트워크다. 이들의 경제적·법률적 현실은 거주국에 속해 있으나 이들은 송금, 여행, 종교적 실천과 같은 행위를 통해 출신국의 장소, 문화, 사람과 연결된다. 트랜스 이주는 사회적 약자의 노동 현실(정현주, 2010; Massey, 1994; Moskal, 2015)을 규명하는 데에 기여해 온 분석틀로서 앞선 두 가지의 인구학적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국제화시대의 네트워크 속성을 대표하는 초지역적 거주다.

## 제 2 절 국내인구이동 바깥의 두 지역살이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지역적 거주는 인구이동을 통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인구이동은 출생 및 사망과 더불어 3대 인구요인이다(최슬기, 2015). 출생과 사망이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현상에 바탕을 둔 개념이라면, 인구이동은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상당기간 거주할 목

적으로 주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이다(최성은 외, 2018). 그렇기 때문에 인구이동은 사회적·지리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 가운데 국내 이동은 시·군·구간의 이동 또는 시·도간 이동으로 간주된다.

두 지역 거주자는 아직까지 정식화된 인구 부문으로 분류된 바 없어, 공식적인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행하는 지역 간 이동이 우리나라 인구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인구이동 동향을 먼저 개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탈 수도 이동 경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전입·전출의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내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띠고, 특히 시·도내 이동에 비해 시·도간 이동이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국내인구이동자 수는 총 615만 2천명으로 인구 1백 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로 환산하면 12.0%에 해당한다. 이는 2015년 대비 3.2%p, 전년 대비 2.1%p 감소한 수치이다. 그중 시·도내 이동은 64.7%(397만 9천 명), 시·도간 이동은 35.3%(217만 4천 명)를 차지한다. 시·도내 이동률은 7.8%, 시·도간 이동률은 4.2%로 전년대비 각각 1.5%p, 0.5%p 감소하였다.

표 5. 국내 이동자 수 및 이동률 추이(1970~2022년), 출처: 통계청

(단위: 천 명, %, %p)

연 도	이동자 수					이동률		
	총이동	시도내	구성비	시도간	구성비	총이동	시도내	시도간
1970	4,047	2,780	68.7	1,266	31.3	12.6	8.6	3.9
1980	8,259	5,653	68.4	2,606	31.6	21.7	14.8	6.8
1985	8,679	5,754	66.3	2,925	33.7	21.3	14.1	7.2
1990	9,459	6,228	65.8	3,231	34.2	22.1	14.5	7.5
1995	9,073	6,208	68.4	2,865	31.6	19.9	13.6	6.3
2000	9,009	6,164	68.4	2,846	31.6	19.0	13.0	6.0
2005	8,795	5,980	68.0	2,815	32.0	18.1	12.3	5.8
2010	8,227	5,564	67.6	2,662	32.4	16.5	11.2	5.3
2015	7,755	5,204	67.1	2,551	32.9	15.2	10.2	5.0
2016	7,378	4,925	66.7	2,453	33.3	14.4	9.6	4.8
2017	7,154	4,743	66.3	2,411	33.7	14.0	9.3	4.7

2018	7,297	4,868	66.7	2,429	33.3	14.2	9.5	4.7	
2019	7,104	4,719	66.4	2,385	33.6	13.8	9.2	4.6	
2020	7,735	5,201	67.2	2,534	32.8	15.1	10.1	4.9	
2021	7,213	4,766	66.1	2,447	33.9	14.1	9.3	4.8	
<b>2022</b>	<b>6,152</b>	<b>3,979</b>	<b>64.7</b>	<b>2,174</b>	<b>35.3</b>	<b>12.0</b>	<b>7.8</b>	<b>4.2</b>	
전년 대비	증 감	-1,061	-788	-1.4	-274	1.4	-2.1	-1.5	-0.5
	증감률	-14.7	-16.5	-	-11.2	-	-	-	-

이처럼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시·도간의 원거리 이주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도내 이사가 빈번하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는 두 지역 거주자와 관련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 ① 먼저 새로운 형태의 인구인동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다. 국내인구이동의 지속적 감소가 과연 지역 간 이동을 촉발하지 않는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 교류가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지방 인구 유입, 지방 일자리 육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정말로 지역 간 이동의 필요성이 이전에 비해 덜 강조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공식적인 통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형태로 지역 간 이동을 수행하는 이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두 지역 거주자들은 바로 그 예이다. 아직 이들에 대한 집계 방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여건에 놓여 있다.
- ② 또한 이동을 감소 추세와 두 지역살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암시한다. 시·도간 이동률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지역살이가 원거리 이주를 일정 정도 상쇄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까운 지역으로의 이동은 직장이나 학교를 옮기지 않고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거처를 찾는 상황이다. 임차기간 만료, 불안정한 양육환경,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거주지의 단순 이전일 때가 많으며 시·도내 거리에서 1일권 왕복 출퇴근 및 통학을 유지한다. 그러나 먼 지역으로의 이동은 단순하게 새 주택으로 입주하는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 새로운 지역이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가

족 구성원 모두에게 기회비용과 적응기간을 수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때 전입신고의 의무가 없는 추가 거처를 찾아 구성원 일부만 두 지역살이를 진행한다면 가족이 기존 거주 지역에 머물며 변화에 따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타 지역으로의 부분 이주가 실질적으로는 발생하지만 공식 집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도간 이동률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6>은 이와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표가 제시하는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를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가장 비중이 높은 인구 이동 사유는 주택(34.4%), 가족(23.7%), 직업(23.4%)으로 총 이동 사유의 81.5%를 차지한다.

표 6.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 및 구성비(2018~2022년), 출처: 통계청

(단위: 천 명, %)

연도	구분	전입사유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2018	전체	7,297	1,532	1,702	2,921	313	248	79	502
		(100.0)	(21.0)	(23.3)	(40.0)	(4.3)	(3.4)	(1.1)	(6.9)
	시·도내 이동	4,868	711	1,039	2,369	172	187	40	350
		(100.0)	(14.6)	(21.4)	(48.7)	(3.5)	(3.8)	(0.8)	(7.2)
	시·도간 이동	2,429	820	663	552	142	62	38	152
		(100.0)	(33.8)	(27.3)	(22.7)	(5.8)	(2.5)	(1.6)	(6.3)
2019	전체	7,104	1,533	1,692	2,758	333	283	79	426
		(100.0)	(21.6)	(23.8)	(38.8)	(4.7)	(4.0)	(1.1)	(6.0)
	시·도내 이동	4,719	703	1,042	2,254	176	214	41	290
		(100.0)	(14.9)	(22.1)	(47.8)	(3.7)	(4.5)	(0.9)	(6.1)
	시·도간 이동	2,385	830	650	504	158	69	38	136
		(100.0)	(34.8)	(27.2)	(21.1)	(6.6)	(2.9)	(1.6)	(5.7)
2020	전체	7,735	1,637	1,795	3,005	346	342	89	522
		(100.0)	(21.2)	(23.2)	(38.8)	(4.5)	(4.4)	(1.2)	(6.7)
	시·도내 이동	5,201	766	1,129	2,455	182	260	46	363
		(100.0)	(14.7)	(21.7)	(47.2)	(3.5)	(5.0)	(0.9)	(7.0)
	시·도간 이동	2,534	870	667	550	164	81	43	159
		(100.0)	(33.8)	(27.3)	(22.7)	(5.8)	(2.5)	(1.6)	(6.3)

	이동	(100.0)	(34.3)	(26.3)	(21.7)	(6.5)	(3.2)	(1.7)	(6.3)
2021	전체	7,213	1,589	1,657	2,714	320	312	87	534
		(100.0)	(22.0)	(23.0)	(37.6)	(4.4)	(4.3)	(1.2)	(7.4)
	시·도내 이동	4,766	745	1,029	2,188	157	236	43	367
		(100.0)	(15.6)	(21.6)	(45.9)	(3.3)	(4.9)	(0.9)	(7.7)
	시·도간 이동	2,447	844	628	526	163	77	43	167
		(100.0)	(34.5)	(25.6)	(21.5)	(6.6)	(3.1)	(1.8)	(6.8)
2022	전체	6,152	1,440	1,459	2,116	329	277	75	456
		(100.0)	(23.4)	(23.7)	(34.4)	(5.3)	(4.5)	(1.2)	(7.4)
	시·도내 이동	3,979	665	900	1,713	148	207	36	309
		(100.0)	(16.7)	(22.6)	(43.0)	(3.7)	(5.2)	(0.9)	(7.8)
	시·도간 이동	2,174	775	559	404	181	70	39	147
		(100.0)	(35.6)	(25.7)	(18.6)	(8.3)	(3.2)	(1.8)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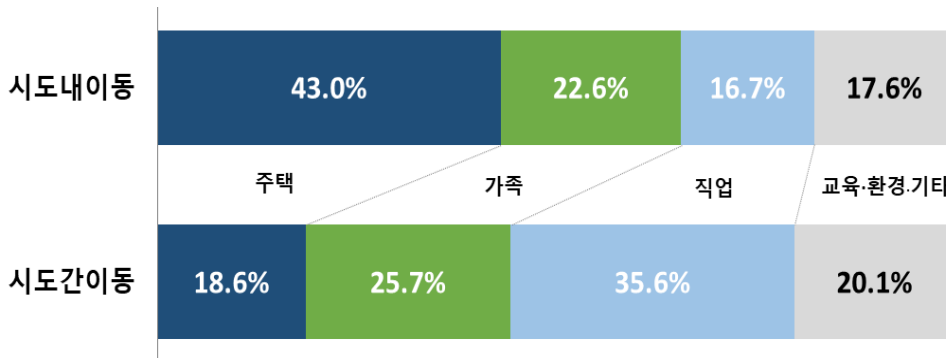


그림 5. 전입사유별 이동자 구성비(2022년), 출처: 통계청

시·도내 이동사유로는 주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시·도간 이동사유로는 직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양상이 다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를 통해 먼 지역으로의 이동을 유발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일자리임이 파악된다.

한편, 연령별 이동률은 <그림 6>과 같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직업 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초년의 20~30대 경제활동인구가 주요 이동계층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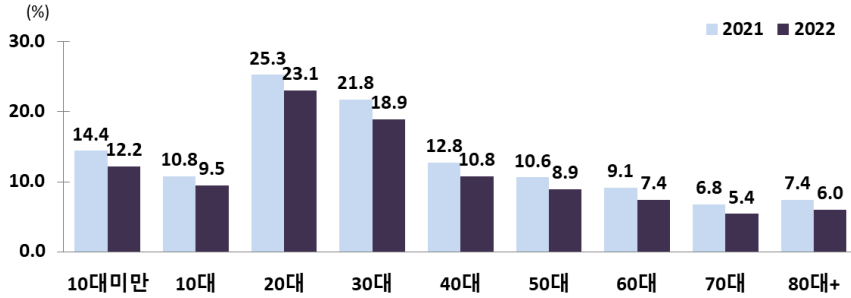


그림 6. 연령별 이동률(2021~2022년), 출처: 통계청

종합하면, 국내인구이동은 취업 전선에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청년층이 구직을 위해 지역 간 이동을 실천하는 경우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30대 중 후반의 연령부터는 직업적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삶의 터전에 커다란 역동을 피하지 않게 되어 지역 이동과 무관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급적 이주를 유보하고 본래의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타 지역과 교류할 기회를 구하는 제3의 방식이 작동한다고 볼 수도 있다. 두 지역 살이는 둘 중에서 후자와 관련을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 연령별 혼인율<sup>8)</sup>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통계청, 2022b) 혼인연차별 자녀현황 통계에 따르면 혼인 3년 차 시기에 유자녀 가구가 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통계청, 2021a). 또한 <그림 6>에서 10대 미만~10대의 이동률과 30~50대의 이동률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이들 미성년의 부모가 30~50대에 분포해 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혼 가정 이 30대 중반 이후로 접어들며 유자녀율이 늘어남에 따라 육아, 자녀 통학, 배우자 직장과 같은 가족적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 지역 간 이동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두 지역살이가 이들에게 유리한 대안으로 작동할 것이다.

8) 해당연령 인구1천명당 혼인건수



### 제 3 절 초지역적 거주를 유인하는 국내 제도 사례

일련의 통계자료 또한 기혼가정에서 두 지역 거주자가 늘어나기 쉽다는 것을 가리킨다.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통계청, 2021b)에 따르면 비동거 맞벌이 가구는 69만 7천 가구로 전체 맞벌이 가구(582만 3천 가구)의 12.0%였다. 이는 2016년 10.9%(맞벌이 전체 533만 1천 가구 중 58만 가구), 2011년 8.6%(맞벌이 전체 507만 가구 중 44만 가구) 수준과 비교해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추세에 최근 도입된 생활인구를 합산하면 두 지역살이의 규모를 개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와 달리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어 아직까지 합의된 집계방식이 없다. 그럼에도 각 지역이 ‘워케이션(workcation)<sup>9)</sup>’에 기울이는 관심을 살펴보면(더리더, 2022) 두 지역살이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업무방식을 뜻한다. 강원, 제주처럼 그간 휴가지로 각광 받았던 지역에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주씩 근무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인구 유입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원방식이 아닌 민간 중심의 상향식 방식으로서 두 지역살이의 구체적 실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두 지역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역 간 이동과 교류를 촉진하리라는 기대를 받는다. 지방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고심 중인 정부와 지역사회는 이들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주·정주가 아니더라도 잦은 방문과 장기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이로써 지역의 산업과 경제, 문화와 교육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관련을 없던 지역에 혈혈단신 뛰어들기란 쉽지 않다. 생활 기반 조성에는 구직, 거주지 마련, 지역문화 습득, 자녀의 전학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동반된다. 따라서 여러 지방 정부는 일거리와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9)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

전남 신안군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섬 고유의 자연적·문화적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워 지역살이 키우려고 한다<sup>10)</sup>. 중소기업벤처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행정안전부 「지역소멸대응기금」과 같은 국비 지원사업을 활용해 폐교와 같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재생하고 청년 인구를 유치하도록 교육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로빈슨크루소대학’은 섬을 잘 알지 못하는 타지역 사람들에게 굴 양식 등 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업 기능을 이수하도록 돕고, 지역에서의 자립과 창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전북 완주군은 지역살이 자립 모델 생성과 청년층 유입을 겨냥한다. ‘청년완주 점프업’ 프로젝트<sup>11)</sup>는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 주거 정착과 교류,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또한 청년 세어하우스 조성사업을 통해 완주군에 관심을 가지고 정착을 위해 탐색하고자 하는 타 지자체 거주 중인 만 18세~39세 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2022년 11월에는 개관한 청년 거점 공간 ‘청춘방앗간<sup>12)</sup>’은 지역에 체류하는 청년이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공간으로 출범하였다.

경북 영주시 역시 타 지역 출신 또는 타 지역으로부터 귀향해 기회를 찾는 영주 출신 생활자의 입장에서 지역의 문턱을 낮추려고 한다. 영주시는 질 높은 직장과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인구를 증진시킨다는 목표로 대학생 대상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 희망주택 신축사업, 청년 주거 지원사업, 청년 인턴쉽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들의 지역 참여, 지역과의 소통을 돕는 청년자치회, 청년문화공간 등을 운영 중이다<sup>13)</sup>.

한편, 행정 법규에도 공직자의 타 지역 생활 지원에 관한 관점이 반영돼 있다. 공무원의 지방인사제도는 지방근무에 따른 우대조치를 포함한다.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장(인사교류) 제156조 제7항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지급기준과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택보조비 또는 관사 등을 제공하거나 유류비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보조비의 1/3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10) 노컷뉴스, 2022. 9. 15.

11) 한겨레, 2023. 2. 14.

12) ‘청년들의 촌살이’와 ‘방앗간’을 합해 만든 조어

13) 영주시민신문, 2022. 11. 18.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가 실시될 경우 근무지와 생활권이 달라지는 교류자에게 통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다. 이는 두 지역살이 희망자에게는 거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일선의 실무자들이 이러한 법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잦아 아직까지 두 지역살이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 어렵다.

## 제 4 절 이동과 접목된 주거 모델

이상에서 언급한 거주 양식들은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 유동성과 잦은 이동에 의한 불안정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동거와 분거를 반복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낳는다(김주현 등, 2010).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한 국경 안의 서로 다른 지역을 이동하며 동거·분거를 반복하는 가족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 이동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목적은 국가나 지역이 안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자연적·정치적·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확산되는 복수 거점 주거는 해당 국가의 인구발달 특성과 더불어 현대적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아 왔다. 또한 이러한 주거 방식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표 7>과 같이 국가별로 상이한 경향을 띤다.

표 7. 이동과 접목된 주거: 국가별 모델

국가	관점	관련 개념	특징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멀티로컬리티 안에서 다양한 거주 양식 세분화</li> <li>⊙ 거점 확보 목적에 의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목적</li> <li>• 여가 목적</li> <li>• 사회적·관계적 목적 (이혼, 부모 돌봄 등)</li> <li>• 재산 관리 목적</li> </ul> </li> </ul>	multilocal dwelling (Tarmo et al., 2023)	북유럽 여름별장 전통과 교차, 여가와 웰빙 중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경향 중 하나로서의 멀티로컬 등장에 주목</li> <li>◎ 지역 이동 목적에 의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 이촌향도</li> <li>• 도시 내 거주지 변경</li> <li>• 여가용 세컨드홈</li> <li>• 근무용 멀티로컬 거주</li> </ul> </li> </ul>	mobility, multiscal dwelling (Li and Xu, 2023)	국토가 광범위하여 스케일에 유의
오스트레일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민·외국인의 노동현실에 주목</li> <li>◎ 노동·지역 성격에 의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자원 개발 근로자의 이동(도시→시골)</li> <li>• 전문직 종사자의 이동(도시→도시)</li> <li>• 순환·계절노동자의 이동(시골→시골)</li> </ul> </li> </ul>	mobile work, multiscal dwelling, FIFO, LAT (Gorman-Murray and Bissell, 2018)	글로벌사우스 산업과 연관

그러나 우리나라의 두 지역살이는 <표 7>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빠른 왕복이 가능한 작은 면적의 국토에서 지역 간 이동이 이루어지며, 북유럽에서와 같이 계절의 특성에 기인한 휴양 전통이 강하지 않아 지리적·역사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직업 목적 그리고 사회적·관계적 목적의 멀티로컬 거주, 중국의 근무용 멀티로컬 거주와 상대적으로 긴밀한 연결을 지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분류의 일부 항목에 부분적으로 대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웰빙과 여가를 중요시하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접 국가나 도서지역을 오가는 두 지역살이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다른 나라의 모델을 참고할 가치가 있다. 그들과의 유사성이나 차이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했던 국내 기러기 가족이나 주말부부 등 우리나라의 두 지역살이는 명확한 모델을 두고 설명되거나 사회적으로 제안되어 온 것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귀납적으로 현상에 접근한다. 또한

이 사례들이 개인의 생존전략으로서 구성된 생활양식이라는 점에서 두 지역살이는 국제 트랜스 이주와 유사한 동기를 공유하는 초지역적 거주일 것으로 인식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초지역적 거주는 어떤 목적에 치중해 있고 누구로부터 그 주도권이 출발하는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그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7>에서와 같이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는 영역 전반에 넓게 걸쳐져 있다. 이는 정책입안자와 사회적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빠르게 그 주도권을 나누어 가졌으며, 여러 가지 목적과 결부되어 다양한 계층과 대상을 포괄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 트랜스 이주는 자산에 대한 접근성, 기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한 개인의 열망에 기반한다. 이는 가장 극대화된 생존전략이며 초국적 활동의 특성을 표현한다. 두 지역살이는 통근, 통학,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을 통해 두 지역을 연결하는 점에서는 관계인구와 유사성을 띠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처럼 과소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어 사회단체에서 모범을 제시하는 공식성이 없다. 오히려 지역소멸과 무관하게 개인의 성장이나 구직 기회를 찾기 위한 사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제 트랜스 이주자들의 ‘아래서부터 위로의’ 노동 네트워크와 유사하다. 따라서 두 지역살이는 국제 트랜스 이주와는 달리 국내 스케일에서 작동한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초지역주의와 유사성을 지닌다. 만일 기존의 초지역주의를 국내로 돌린다면, 이러한 거주 형태는 국내형 초지역주의 현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지역살이를 <그림 7> 국내 기러기 가족 위치에 대입시켜 본다면 초지역적 거주 의 총체적인 지형 안에서의 그 자리를 매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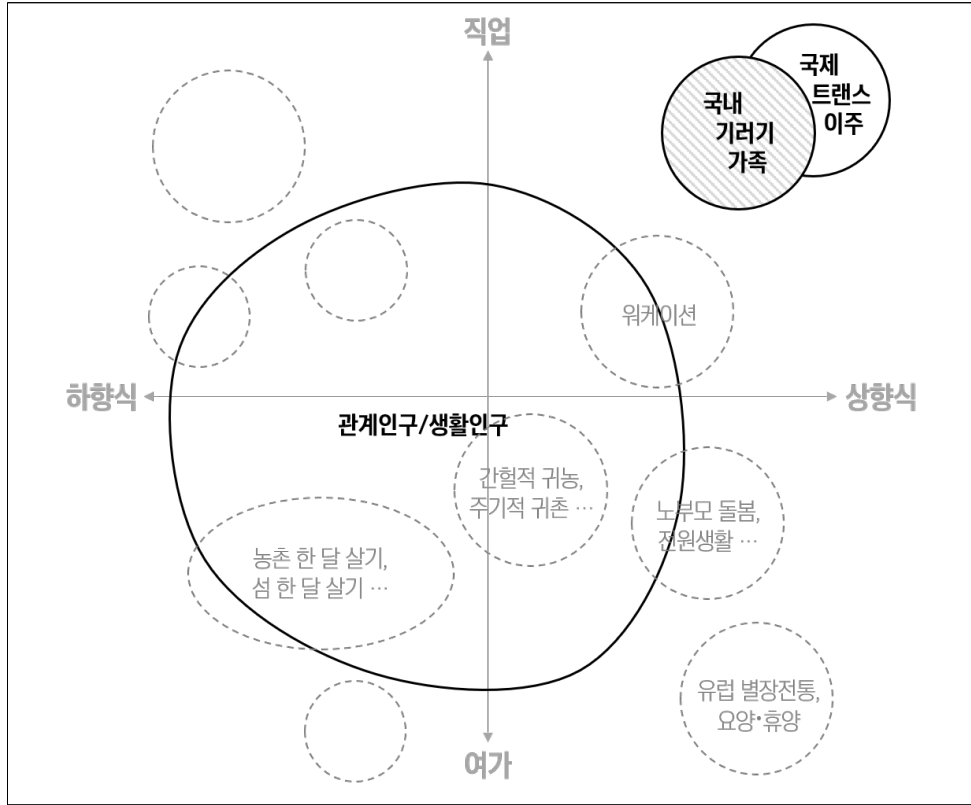


그림 7. 목적 및 주도권에 따른 초지역적 거주 유형

이후에 살펴볼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두 지역살이는 경제 활동과 같은 생활필수적 목표, 경력 강화와 같은 성장지향적 목표에 기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두 지역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기러기 가족으로 대표되지만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두 지역을 넘나드는 독신가구, 자녀가 없는 비동거 부부도 포함한다. 또한 두 지역살이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추동된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상향식 움직임으로서 국제 트랜스 이주와 더불어 <그림 7>의 1사분면 그래프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 제 4 장 두 지역살이의 발생과 유형

### 제 1 절 두 지역 거주자의 발생 조건

#### 1. 두 지역 거주자의 분포 범주

연구 참여자에게는 직종과 학력에서 일정한 특성이 있었다. 이들이 가진 특징은 두 지역 거주자들이 어떤 집단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설명하는 요소로서 이들의 분포 범주를 의미한다.

표 8. 연구 참여자별 특징

참여자	현 직업	학력	두 지역살이 지역 (기존지역-확장지역)		
			현재	최근 5년	5년 이전
A	교직자	대학원졸	경남-서울		
B	공연연출가	대학원졸	부산-서울		세종-서울
C	교직자	대학원졸	경기-전북		
D	교직자	대학원졸	경기-서울	경기-경기, 경기-대구	
E	연구원	대학원졸	경기-대전		
F	사업가	대졸	서울-전남		
.....					
Y	예술강사	대학원졸		서울-제주	
Z	작가/교직자	대학원졸	경기-경기	경기-서울	
AA	교직자	대학원졸	서울-경남		
AB	연구원	대학원졸		서울-대전	
AC	공무원	대졸	충북-서울		
AD	회사원/학생	대학원재	서울-경기		

<표 8>은 연구 참여자의 현재 직업, 학력, 그리고 두 지역살이 경험 지역을 보여준다. 이들 대부분은 학위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교육·지식산업에 종사한다. 또한 자신의 분야에서 중등도 이상 경험을 쌓은 30대 중반 이상 기혼자가 많았다. 이들은 가정의 행복과 경제적 안정, 자아성취 모두를 원한다. 그러나 수도권에 고급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며 취업 경쟁은 극심하다. 이들은 수도권에 터를 잡았다가 더 안정적인 고급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확장했다는 특징이 있다.

“제가 너무 원하던 일이었거든요. 원했던 직장이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갈까 생각해 봤는데 [가사와 양육의 장소를] 계속 여기로 하자는 남편 의지가 강했어요. 제가 워낙 일에 몰두하는 스타일이라 어쩌면 구분되는 게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여기 있으면 시어머니 도움을 받는데 그걸 못 받게 되니까, 엄마의 부재에 익숙해지는 게 낫겠더라고요.”

(참여자 O, 40대 여, 교직자, 2023년 1월 5일 면담)

연구 참여자 O는 경기도에 남편, 자녀와 살고 있지만 부산에서 채용이 결정되면서 맞벌이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했다. 그는 이것이 목표했던 직장이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육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를 부산으로 데려가지 않기로 한 데에는 가족들이 자녀를 더 잘 돌봐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가족을 돌보는 것이 두 지역살이에 장애가 되는 동시에 가족의 도움이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 참여자가 직업에 더 열중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한편, 참여자 A도 서울에 살다가 경상남도로 취업하면서 이주 대신 두 지역살이를 하게 되었다.

“출신 대학 때문에 은근히 차별 아닌 차별이 있었어요. 국내파인 것도 암암리에 불리했구요. 확실히 해외 학위를 높게 쳐 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싶었는데, 막상 지방에서 오라고 하니 집에서 너무 먼 게 걱정이 됐어요. 1~2년짜리 계약직이 아니고 거기서 쪽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좋은 기회니까 오래 고민한 건 아니고요. 사귀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어서 그



냥 가끔 보게 된 거죠. 관계가 제일 걱정이 됐죠.”

(참여자 A, 40대 남, 교직자, 2022년 7월 1일 면담)

이 참여자는 특정한 학벌과 학위를 선호하는 소속 분야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지 못해 갈등다가 마침내 지방에서 좋은 자리에 발탁되었다. 전문가로서의 높은 대우를 받지만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연로한 부모님을 보살피기 위해 직장이 있는 지역에 영구히 정착할 결심이 서지 않았다. 대신 확장 거주 지역에는 원룸을 얻어 출퇴근용 숙소로 활용하면서 주말마다 기존 거주 지역으로 돌아왔다.

이들과의 면담에서 확인된 것은 두 지역 거주자가 경제활동과 경력에 유리한 조건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가정과 가족의 안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독신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부부 2인 가구 역시 두 지역 거주자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개인적 성장을 위해 근무지 발령, 사업 확장, 시골농장 가꾸기, 도시 문화 인프라 등의 요소를 다양하게 접목하고자 의도적으로 주거를 이원화한다.

“코로나 때문에 강사 일이 중단됐어요. 여기가 아버지 고향이라 집을 지어 놓았던 건데, 엄마가 “이참에 이제 거기서 좀 놀자”고 해서 주말마다 오게 됐어요. 시골에서 마스크 안 쓰고 운동해도 되고 여기 생활이 좋아져서 방문일을 목, 금, 토, 일로 늘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용공연 기획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일은 여기서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참여자 P, 30대 여, 문화기획자, 2023년 1월 10일 면담)

“남편이 문산에 땅이 있어서 그걸 살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공간 제약이 없다 보니까 서울에서 굳이 안 해도 되고... 원래 저희는 코로나 전부터 한국을 떠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였어요. 원래는 해외에 집을 하나 살 계획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거점[거주할 곳]이 없으면 진정으로 그 지역에 가는 게 아니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목적지가 여기로 바뀔 거라고는 딱 1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죠.”

(참여자 S, 30대 여, 디자이너, 2023년 1월 16일 면담)

이와 같이 독신 내지 부부로 구성된 가족 단위에서는 두 지역살이 선택에 수반되는 고민으로 직업이 유일하거나, 오히려 더 자유롭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두 지역살이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 이들은 비교적 느슨한 가족 네트워크와 장소 구애가 덜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1차 거점과 2차 거점 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편이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두 지역 거주자가 가족의 거주 지역을 1차 거점으로 규정하고 ‘돌아가야 할 곳’으로 여기는 반면 직장이 있는 지역을 2차 거점으로서 임시적, 가변적, 대안적 공간으로 파악하는 경향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통해서 두 지역 거주자의 직업적 조건과 지역 간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직업적으로 지방 소재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확장 거주 지역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대전광역시(4건), 전남 목포시(4건), 부산광역시(4건), 경남 진주시(3건)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소재한 곳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지역에 속한 사례자들은 주변에서 자신과 같은 두 지역 거주자를 목격한다는 사실을 다른 지역 사례자에 비해 자주 언급하는 특징을 보였다. 해당 지역은 KTX와 국내항공 노선이 운영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과 연결되는 고속 교통시설이 잘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교통과 이동의 편의는 지역 대 인재의 상호작용을 촉발하여 유연한 생활양식, 사회적 상호작용, 다양성, 지역의 질을 겨냥하는 창조계급(Florida, 2005)의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초지역성적 연결성과 이동성의 관계에 관한 이해의 틀을 확장한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초지역적 연결성은 장소 간 지식과 의사소통, 정치, 문화, 경제 활동의 반복적 흐름을 촉진하는 네트워크로 이해되어 왔다(De Haas, 2010). 이때, 지식의 흐름이란 정보 또는 인식이 사람들의 지역 간 이동에 의해 여러 지역에 널리 전파, 공유, 유통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것은 초지역성의 두 축 중 한 축을 사람들의 이동, 송금(Long, 2008), 상품 거래(Verne 2012)와 같은 물질적 이동이 담당하고, 다른 한 축을 앎이나 유행의 전달 같은 상징적 이동(Ma, 2002; Reetz 2010)이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 지역 거주자가 두텁게 분포하는 집단의 계급적 특징을 살펴보면 초지역적 네트워크가 불러일으키는 지식의 흐름은 지식 그 자체일 뿐 아니라 지식을 직업적으로 활용하는 주체들이며 그들이 종사하는 일자리이다. 사례자들의 경우에서처럼 이것은 고도의 지식을 가진 인력의 실제적인 이동으로서 물질적 면을 보인다. 이들을 통해 지식의 흐름은 추상적 앎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이동과 상징적 이동을 하나로 중첩시킨다. 그러나 사례자들이 기반해 있는 직업의 특성은 초지역성의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들의 직업은 비물질적인 지식 자원을 처리하여 장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어업이나 조선업과 같이 특정한 자연조건·지형조건에 기반할 가능성이 낮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인구 교류를 모색하고 지방 도시에서는 질 높은 교육과 새로운 문화를 공급하는 경로를 꾸준히 만들기 위해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거주자들의 활동 결과로 초지역성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들이 이미 초지역적 삶의 조건 속에 살아간다고 파악된다.

그러나 초지역적 네트워크 위에서 살아갈 때 초지역성을 선택하거나 그 선택을 요구 받기 쉬운 계급적 범주가 있다고 보인다. 직업의 특성은 초지역적 거주를 일으키는 원인일 수도 있지만 초지역적 네트워크에 기반해 성장하는 사회가 낳은 결과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 2. 두 지역살이 선택의 매커니즘

면담 결과, 두 지역살이는 대부분 가족 거주에 유리한 지역과 일하는 지역의 불일치 때문에 시작되었다. 맞벌이 소득이 필요하거나 남편과 아내가 각기 다른 곳에서 직업적 성취를 추구하는 여건 속에서 기존 거주 지역이 자녀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된다. 또는 주택청약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주소지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구성원 중 한 명이 확장 거주 지역을 개설하여 두 지역을 오가게 된다.

연구 참여자 C는 경기도에 배우자, 자녀와 살고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일한다. 자녀와 배우자가 수도권에서 학업 중이어서 두 지역살이를 하게

되었다. 가족의 교육 기관과 생활 기반이 모두 있는 수도권을 1차 거점으로 하고 있다. D, H, AB 또한 서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수도권에서 강의와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경력을 쌓을수록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요원했다. 경력에 맞는 고급 일자리는 오히려 지방에서 주어졌다. 이들은 각각 대구, 강원, 충북에 소재한 대학에 취업한 후 두 지역에 살기 시작했다. 연구 참여자 F의 경우 서울에서의 '로컬 크리에이터'로 서울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기반으로 지역에 역진출한 경우이다. 지역에서 구한 일자리가 높은 보수와 지속성을 담보하지만 서울에서 시작한 지역 주민들과의 로컬 콘텐츠를 중단하고 싶지 않았다. 경제적인 기반은 지방 도시로 이전하는데 자신만의 브랜드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두 지역살이를 택했다.

“집이랑 가족은 서울에 있었는데 직장 때문에 저만 그리로 갔어요. 그렇게 할 만했던 게 직장이 관사까지 제공해 주면서 조건이 괜찮았고, 연봉도 높았고. (...) 그때 차가 서울과 대전에 한 대씩 있었는데 차 두 대 정도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참여자 AB, 40대 남, 연구원, 2023년 3월 5일 면담)

“원래 지방 출신이에요. 정작 지방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해방촌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했던 것 때문인데 거기도 일종의 지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역 발굴을 했고, 이 경력을 좀 더 깊이 있게 활용하고 싶었어요. 공무원을 하면서 주소는 옮겼지만 생활은 좀 더 여유가 생겨서 서울에서 개인적으로 하던 일을 더 잘 하게 됐어요. 충북이 서울에서 그렇게 먼 것도 아니라서.”

(참여자 F, 50대 남, 사업가, 2022년 5월 21일 면담)

이 면담자들은 원래 살던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들은 두 지역을 오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느끼며, 기존 거주 지역에서의 자녀 교육이나 공동체 활동을 일을 지속하고 있다. 두 지역을 자주 왕래할 정도의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는 한 선택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

는다. 오히려 일가족이 한꺼번에 이주하거나 기존 거주 지역을 포기하는 데에 더 큰 손실이 따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참여자는 COVID-19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줄었으나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 새로운 일을 모색하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두 지역살이를 시작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줄어서 다른 걸 해 보려고 준비했던 때거든요. 부산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서 한동안 내려가 있었어요. 부모님 계시는 곳은 원래 명절이나 무슨 날에 갔었는데 부산에서 시작한 일은 어차피 집에서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도와드릴 것이 많아지고. 자주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게 지금까지 다니는 거죠.”

(참여자 F, 50대 남, 사업가, 2022년 5월 21일 면담)

이 면담자들은 두 지역살이를 지속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최소 주 2회 연이어 쉴 수 있는 휴일을 꼽았다. 전문 영역에서 치열하고 바쁘게 살았던 이들은 COVID-19 중의 재택근무·원격근무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계기가 되었다고 느낀다. 경제적인 여유, 최소 주 2일의 연속된 휴일, 편안하게 체류할 수 있는 거점은 여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두 지역살이 선택의 매커니즘이다. 이 중 둘 이상이 주어질 때 반복적인 이동이 촉발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동이 지역과의 교감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임을 가리키는 면담 내용도 있었다.

“지방 대학에 임용된 친구들을 보면 그래요. 기를 쓰고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왜 올라가냐고 하면 “너희가 나를 안 받아주니까 올라가지.”라고 하고 지역에서는 “너희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거지.”라고 하고, 서로 서로 그러는 입장이죠.”

(참여자 D, 40대 남, 교직원, 2022년 6월 4일 면담)

이것은 두 지역 거주자들과 확장 거주 지역이 서로를 밀어내는 현실에 대한 관찰에서 비롯된다. 두 지역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위주로 두 지

역살이의 구조를 인식하는 다른 면담과 다르게 두 지역에서 서로 밀어내는 장력을 통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서술은 특정 면담자에 국한되어 발견된 것이지만 지역 간 이동의 인력과 장력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역 간 이동이 지역에 빠르게 밀착하기 어려운 현실의 이면일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두 곳의 거주지를 돌보고 유지한다. 이것은 삶의 여러 제약 사이에서 이들이 노동과 생활의 조화를 꾀하는 가장 합리적인 타협점이다. 이러한 두 지역살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하려는 의지이며, 일과 생활의 공간적 괴리를 이동과 원격통신을 통해 봉합하려는 노력이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삶의 영역을 확장한 트랜스로컬 이주(Schiller et al., 1995; Faist, 2000; Li et al., 2019)와 같이 생존 수단이자 성장 전략으로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전원 생활 속의 휴가, 농촌에서 미래 공동체를 탐색하는 귀농·귀촌과 구분된다. 이러한 초지역성 개념의 중심에는 이동성, 움직임 및 흐름, 서로 다른 규모의 지역 간 연결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이 있다. 이는 초국가적 이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의 일상 통행, 도시-농촌 간 통근 과 같은 한 국가 내 이동을 포함한다(Hedberg and do Carmo, 2012; 조대현, 2021). 또한 이동 주체에만 관심을 두지 않으며, 고정된 위치에서 이동 주체와의 연결성을 형성하는 사람들에게로 시야를 넓혀 그 전체의 모집단으로 간주되는 환경에 주목한다(Brickell and Data 2011; Rau 2012). Sun(2006)은 특정 장소를 함께 의논하고 상상하며 그곳에서의 익숙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이동 주체와 비이동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했다. 이러한 관점은 이동하는 주체를 둘러싼 고정된 삶의 조건이 이동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환기하고, 초지역적 거주가 그들 사이에서 공동 생산됨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초지역적 거주는 이들의 선택과 열망에 근거하고 있으나, 완전한 자발성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 가정, 직업, 여가, 노후 대비, 정서적 안정, 재산 증식 등 이들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 기반해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동 주체는 비이동 주체와 상호작용을 피해야만 한다. 이것은 두 지역 거주자가 그 자신의 이동의 결과로 두 지

역을 거느리게 된 것이 아니라, 초지역성을 요구하는 네트워크 상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현실이 가져온 결과로서 두 지역살이가 발생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지역살이 선택의 매커니즘은 초지역성이 탑재된 공간에 적용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 제 2 절 두 지역 거주자의 유형 및 합의

### 1. 우선 지역에 의한 분류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서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주민등록법이 있어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법적 주소는 실제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주소지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한다. 두 지역 거주자들은 주로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거점을 중심 거처로 보아 그곳을 법적 주소지로 한다. 그러나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표현하기 위해 가족을 제외한 본인의 주소지만 근무 지역으로 옮기거나 지방정부의 행정 지원을 얻기 위해 확장 거주 지역에 주소를 두기도 한다. 참여자 P와 S는 주소지를 기존 거주 지역에 두고 있어서 확장 거주 지역에서는 주민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었다. P는 서울에 있는 주소를 옮기면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인 기금을 받을 수 없고, S는 자신 명의의 회사를 관리하는 문제로 주소를 이전하지 못했다. 이들은 주소지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두 지역 거주자들은 각 지역에 서로 다른 소속감을 느낀다. 그리고 각 지역에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며 얼마만큼의 소속 의식을 두느냐에 따라 지역 간 이동 패턴이 다를 수 있다. 확장 거주 지역이 어떤 이에게는 용무만 마치면 떠나야 하는 곳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될 때마다 친구와 이웃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다.

표 9. 1차 거점 기준별 유형: '어디를, 왜 1차 거점으로 생각하는가?'

유형	이유	선택(중복) 점(●)의 개수는 선택자 수를 의미
기존 거주 지역 우선형	가족	●●●●●●●●●●
	재산	●●●●●●●●
	직업	●●
확장 거주 지역 우선형	가족	●●●●●
	재산	●●●●●●●
	직업	●●●●●●●

두 지역 중에서 어디를, 왜 1차 거점으로 생각하는지에는 <표 9>와 같이 크게 가족, 재산, 직업의 세 가지 요소가 개입됨을 알 수 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해 오던 기존 거주 지역을 1차 지역으로 여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주택, 토지, 차량, 가구, 악기, 서적 등 사적 소유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지역 역시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2차 거점이었던 곳에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축적될수록 이곳을 1차 거점으로 재인식하기도 한다. 취업으로 인해 확장 거주지를 생성하고 이곳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이 요소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지는 두 지역살이의 진행 과정 안에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 참여자 A는 지방에서 구직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왔고 두 지역살이를 하면서도 여전히 서울에 있는 가족 및 연인과 긴밀하게 교류하였으며 서울에서 열리는 모임에 자주 참석하였다. 그러나 확장 거주 지역에서 적응하고 주택을 장만함에 따라 그곳을 더 친숙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M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활동 지역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지만 서울에서 계속 일한다. 그는 고향인 서울이 가장 익숙하고 이곳에 있는 아파트와 직업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남편과 함께 사는 곳에 더 중요성을 두고 그곳을 1차 거점으로 정하였다. Q 역시 인천에서 사촌의 가족과 함께 살며 서울에서 학



업과 직업을 수행해 왔다. 수도권에서 한 달의 반 이상을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지만, 부모님의 고향이자 자기 소유의 집이 있는 전남 목포시에 특별한 소속감을 느낀다. 돌보고 가꿔야 할 자산이자 혼자 쉴 수 있는 시간·공간을 보장하는 목포의 집이 Q에게는 ‘돌아갈 뿌리’이다. 이처럼 두 지역 거주자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각기 다른 거점에 무게중심을 두고 양방향으로 이동한다.

“나중에 은퇴해도 저는 대전에 살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대전을 집이라 해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직장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본격적인 집은 엄마 계시는 수원이라고 봐야죠. 주말에 조카들 돌보는 사람이 저라서 가족들이 저를 자주 찾기도 하고. 중요한 물건도 다 수원에 뒀어요.”

(참여자 E, 30대 남, 연구자, 2022년 5월 7일 면담)

참여자 E에게는 1차 거점에 대한 현재의 분명한 소속감과 2차 거점에서의 미래 계획이 혼재되어 두 지역 모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는 앞으로 확장 거주 지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를 희망하지만 가족과 중요한 물건이 있는 기존 거주 지역을 1차 거점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정서적인 교류가 기존 거주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것이 직장보다 더 근원적인 삶의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참여자의 경우에도 가족의 거주 지역에 1차 거점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정서적인 문제인 거죠. 저희 애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랑 거기 친구들 엄청 좋아해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계속 한 동네에서만 살았고 다른 데서 사는 건 상상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지방이 더 좋은 것도 많은 거예요. 서울은 도시로서 가질 수 있는 기능을 너무 많이 포기했어요. 여기서는 넷물에 밭도 담글 수 있는데 (...) 그래서 가족 전부 여기서 사는 걸 고려해 본 적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애들한테 지금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새로 적응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요.”

(참여자 H, 50대 남, 교직자, 2022년 6월 15일 면담)

참여자 H는 확장 거주 지역에 깊은 애착을 느끼고 서울이 가지지 못한 지역의 장점을 언급한다. 그러나 자신의 직업적 성공이나 거주환경에 관한 철학보다 양육에 유리한 조건을 우선시한다. 그는 자녀의 정서에 더 필수적인 것이 교우관계라고 판단하고 가족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 한편, 주택을 소유한 지역이 더 중요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참여자 E가 은퇴 후의 삶을 확장 거주 지역에서 계획하고 싶어하면서도 아직 주택을 장만하지 못하여 1차 거점으로 여기지 못하는 현상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전에는 서울에 오면 최대한 오래 있다가 내려갔었는데, 이제는 반대예요. 거기가 더 편안해서 최대한 빨리 내려가려고 해요. 집을 사서 그런가 봐요. 엄마 집에서는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돼요. 계속 서울에서 볼일이 있으니까 올라왔는데 이제 서울 집은 비좁게 느껴지고, 맘 놓고 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A, 40대 남, 연구자, 2022년 7월 1일 면담)

이 참여자는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는 확장 거주 지역을 1차 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이제 확장 거주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고 하며 지역 사람들과의 친분도 더 끈끈해지는 데에서 변화를 느낀다. 이를 통해 재산의 위치가 확장 거주 지역에 대한 소속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향에 의해 두 거점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A는 처음에 기존 거주 지역에 더 강한 소속감을 느꼈으나 직접 소유하고, 머물고, 가꾸는 집이 생긴 것을 계기로 1차-2차 간의 거점이 뒤바뀐 경우다.

“얼마 전에 고양에서 행복주택이 됐는데 완주에서 청년마을 관련된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다음 달부터 아내랑 같이 완주에 가 있을 거예요. 주말에는 고양에 올라오고요. (...) 저희가 수도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꼭 행복주택 때문만은 아니에요. 완주에 아주 정착을 하겠다는 확신이 없어서요. 비슷한 일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아질 테니 나중에

또 다른 곳으로 확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참여자 L, 30대 남, 청년기업가, 2022년 12월 22일 면담)

L 역시 행복주택에 입주권을 얻은 서울에 생활의 중심을 두고 있다. 동시에 앞으로의 제3의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그로 인해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음에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처럼 두 지역의 관계는 처음부터 분명한 것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반복되고 조정되는 경향을 띤다. 따라서 두 지역살이의 진행은 그 불분명한 관계가 조정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거점의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한 면담자들로부터 두 거주지 간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두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은 그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이들은 확장 거주 지역에서 주택 매입을 통해 지역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낀다. 이는 두 지역살이가 취업의 문제와 부동산 경쟁이 모두 더 심한 지역으로부터 덜 심한 지역으로 확장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음을 가리킨다. 둘째,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확장 거주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머무는 거점을 중요시한다. 원룸, 아파트, 기숙사, 창작 레지던시<sup>14)</sup>, 오피스텔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체류와 이동을 꾀하며, 향후에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할 것을 고려하여 지역의 부동산 동향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것은 초지역적 거주자가 단순히 지역의 경계를 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유권을 통해 두 지역 간 관계를 조율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1, 2차 거점을 구분하는 준거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첫째 가족은 직업과 더불어 두 지역살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두 지역 거주자들이 빈번하게 지역을 왕래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가족 관계에 큰 비중을 두는 기혼자의 경우 대개 기존 거주지에 배우자와 자녀가 살고 있어서 그곳을 1차 지역으로 여긴다. 그러나 일부 두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확장 거주 지역에 친지나 결혼 대상이 거주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더 강한 소속감을 느끼며 이곳을 1차 지역으로 여긴다. 둘째 경제활동은 지역에 독립적으로 뿌리내리고 자생활 기반이며 자아실현의 수단이기도 하다. 독신자들은 기존 거주

---

14) 예술가들이 특정 공간에 머물면서 창작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역에 비해 취직 때문에 찾게 된 확장 거주 지역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직장인 겸 대학원생인 AD는 경기도 용인의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 그곳에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며 거의 매주 방문하여 옷가지를 교체한다. 경기 용인시에서 서울 북부까지 가는 통근과 통학 시간을 단축하고자 서울에 보조 거처를 얻었지만 독립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서울에서 더욱 소속감을 느끼고 있으며 서울을 1차 거점으로 규정한다. 셋째 재산도 하나의 준거가 된다. 이때 재산은 주택이 대표적이지만 토지, 자동차, 서적, 가구 등의 동산·부동산 사적 소유물을 넓게 아우른다. 물적 가치는 가족과 마찬가지로 직접 돌보고, 관리하고, 처분해야 할 대상이며 삶을 구성하는 명백한 요소로 책임감을 요구한다. 이 항목을 준거로 끄는 참여자 중에는 기존 거주 지역에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더 많으나, 일부는 두 지역살이 이후 확장 거주 지역에서 자기 명의의 토지·주택 매입을 계획하고 이곳으로 물자를 이동시키면서 이곳을 1차 지역으로 재인식하였다. 일부 면담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곳이다”라는 간접적 표현에 담아 서술했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은 친숙한 물건과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곳임을 의미하였다.

특히 재산의 위치에 의한 생활 중심 설정은 주소지와도 연관이 깊다. 거주자가 주소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계획을 가진 이들은 청약주택 순위와 가산점 등에서 영향을 받고, 주택의 주소가 어느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재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초지역적 거주에 참여하는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 복수주소제를 운영한다(하혜영·류영아, 2022). 복수주소제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을 ‘주 거주지(Hauptwohnsitz)’로, 주 거주지 외에 추가적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을 ‘부 거주지(Nebenwohnsitz)’로 부르고 있다.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는 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주말부부의 경우 실제 거주와 일상 활동의 상당 부분이 직장 근처의 부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을 가장 중요한 생활 기준점으로 본다면 이곳을 주 거주지로 간주한다. 주민은 두 지역을 모두 거주지로 신고할 의무가 있고 부 거주지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지역에 제2거주세(Zweitwohnsitzsteuer)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부 거주지에서의 주택임차료, 주 거주지로의 이동 경비 등을 소득에서 세액공제 함으로써 납세

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제2거주세 징수를 통해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을 충당한다는 장점을 취한다. 면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두 지역살이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두 지역에 서로 다른 거주 목적과 중요성을 매기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두 지역에서 맺는 경험과 지역 참여의식은 생활인구 증진을 돕는 새로운 주소제 도입에 참고되어야 할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2. 이동 패턴에 의한 분류

두 지역 거주자의 거주지 간 이동 패턴은 대개 업무 스케줄에 의존한다. 대학, 공공기관, 기업과 같이 정해진 근무 요일에 따라 일하는 경우, 근무가 끝나는 요일에 1차 거점으로 이동했다가 근무가 시작되는 요일에 맞춰 근무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가, 프리랜서, 작가 등 다른 직업은 근무 일정이 자유로운 편이나 용무 처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1차 거점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표 10. 연구 참여자별 이동 양상에 따른 유형

유형	주당 근무일수	이동 시점	1차 거점 체류 시일	평균 이동 빈도
정기이동(A)	4~5일	근무 종료일 및 시작일	2~3일	매주
정기이동(B)	4~5일	필요시	2~5일	매주 또는 격주
유연이동(A)	주별 상이	필요시	1~3일	매우 빈번
유연이동(B)	주별 상이	필요시	5~15일	월 1회

<표 10>은 이동 방식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네 가지로 유형화한 것이다. 참여자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지역을 이동한다. 가장 많은 참여자(총 17건)가 분포하는 정기이동(A)형은 매주 1차 거점과 2차 거점을 왕래하는 이들로 이동 시점과 지역별 체류 시일에서 높은 규칙성을 보인다. 출근이 이루어지는 평일 4~5일을 근무 지역에 거주하고 매주 근무 마지막 날 오후에 1차 거점으로 이동한 뒤 주말을 포함한 2~3일을 보내고 돌아온다.

그 다음으로 많은 참여자(총 10건)가 분포하는 정기이동(B)형은 한 기관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 요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필요할 때마다 움직이는 편이며 이동 빈도가 매주 또는 격주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정기적이다. 이동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차 거점에 한 번 머무는 기간이 정기이동(A)형에 비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 이동 시점이 매우 불규칙하고 유연한 두 가지 유형에는 가장 소수의 참여자(총 3건)가 포함된다. 유연이동(A)형에 속하는 참여자(총 2건)는 아무런 규칙성 없이 업무 일정에 따라 매주 2회 이상 짧은 간격으로 매우 빈번하게 지역을 이동한다. 유연이동(B)형은 가급적 월 1회씩 1차 지역에 방문함으로써 다소 규칙성을 띠지만 정해진 이동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오래 머무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이동 횟수를 최소화하여 한 번에 한 곳에서 길게 체류하는 양상을 가진다.

<표 9>는 <표 8>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각각의 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들 간의 대응이다. <표 8>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은 가족을 이유로 기존 거주 지역을 1차 거점으로 여기는 유형이다. 이들 대부분은 <표 9>에서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한 정기이동(A)형으로 재확인되는 경향이 강했다. 면담에서 이 두 범주는 대체로 동일한 참여자들로 구성됨을 확인하였고, 모든 참여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거주자들은 가족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자주, 그리고 신속하게 기존 거주 지역으로 복귀하고자 이동의 빈도와 정기성을 중요시한다. 이들은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에게 기존 거주 지역은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며 자신이 성장한 곳으로서 스스로를 소개할 때 “원래는 서울 출신”, “○○사람”처럼 지역의 이름을 넣는 등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성 일부로 내면화한 곳이다. 따라서 그곳에서의 정서적 안정, 문화적 만족, 경제적 투자는 이들의 삶에서 커다란 동력을 담당한다. 이들은 현재 행하고 있는 두 지역살이 역시 중국에 이 지역으로 돌아가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발돋움하기 위한 성장 전략이 되기를 희망하거나 현재의 두 지역

살이가 과도기일 것으로 이해한다. 이들의 경우 성공적 경험을 가지고 기존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확장 거주 지역에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안전한 이동 수단을 찾는다.

따라서 이들의 이동 패턴과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은 두 지역살이 연구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유형의 거주자들은 정기적으로 자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 교통수단의 사용이 필연적이다. 여러 연구 참여자들은 고속열차 정기 탑승에 대한 할인 지원이 부족함을 아쉬운 점으로 꼽는다. 이들이 느끼는 교통비용에 대한 부담은 주말에 가족들이 확장 거주 지역을 방문하는 것보다 두 지역 거주자 자신이 기존 거주 지역을 방문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도록 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수적인 효용과 경비 절감 전략은 두 지역 거주자가 일방적으로 지역 간 이동을 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교류를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더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여 이들의 이동 방식을 개선하면 가족 단위의 거주지 환류를 증진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정책은 개인 차량을 자주 이용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여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시키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수단 제도의 보완은 가족과의 동거를 중시하는 두 지역 거주자들에게 경제적 이점과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이동 방식을 촉진함으로써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이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이는 지속가능한 두 지역살이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인구 교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서 환경 보호와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동시에 고려하는 초지역주의 정책 개발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 절에서는 두 지역 거주자의 이동 양상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어떠한 유형이 가장 지배적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두 지역 거주자의 이동은 이들이 두 지역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이들의 근무 특성에 기인하였다. 정규 근무일이 정해진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며 정기적으로 휴일을 갖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부양 능력을 가진 이들이 두 지역살이의 가장 주된 유형이다. 이들은 기존 거주 지역을 1차 거점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두 지역 간 이동과 체류를 계획한다. 이러한 이동에 기반하는 초지역적 네트워크는 지역 간 인구 교류를 통해 지식과 의사소

통, 정치적·문화적·경제적 활동의 반복적인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임 (Hedberg and do Carmo 2012)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두 지역 거주자와 그들의 가족·동료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들의 네트워크는 초지역성 실천의 결과인 동시에 전제 조건이다. 두 지역 거주자의 유형을 통해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자원을 충분히 가진 행위자들이 초지역적 네트워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제 5 장 경험과 전략으로서의 두 지역살이

## 제 1 절 두 지역살이 경험과 초지역성

### 1. 두 지역살이에서 재구성되는 초지역성

초지역성 관련 연구(Zapata, 2018; Li, Wang and Jin, 2019; Ajefu and Ogebe, 2019)는 노동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다루어 오는 동안 이주 현상의 사회적 함의점을 찾는 데에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제공했다. 여기서 고찰된 초지역성의 속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것을 두 지역살이와 연결 짓는 것이 이 절의 목적이다.

첫째 초지역성은 지역의 연결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특히 역동적 기능을 내재한 연결성으로서 경계를 넘나들 뿐 아니라 이 경계를 점차 더 바깥으로 확장시는 침습 구조이다. Massey(1993)의 초지역성 연구는 이주자들이 국가·지역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자금, 상품, 문화, 지식을 전파하여 출발지, 도착지 간 연결을 이루는 현상에 주목한다. 또한 이것이 두 지역사회와의 복잡한 관계와 상호의존성을 유지하며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는 점에 주목한다. 이주자들은 연결과 확장을 발생시키는 주체이면서 네트워크 바로 그 자체에 거주한다.

둘째 초지역성은 다중중심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주를 다중중심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 이는 이주자들이 단순히 하나의 출발지에서 하나의 도착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출발지와 도착지 간의 연결을 유지하며 다발적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발생시킴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장소가 각각의 역할과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주자의 삶에 다원적인 거주지로서 개입된다. 또한 이들은 출신지-정착지와 같은 명확한 관계로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변화시키고 재생산하며 이주의 복합성을 설명한다.

셋째 초지역성은 시-공 압축성을 띤다. Massey(1993)는 이것을 권력-

기하학(power-geometry)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제트족(jet-setters), 팩스와 전자메일(e-mail)을 주고받는 사람들, 국제회의에 초청받은 사람, 영화 배급자들, 뉴스 정보를 다루고 가공하는 사람들(Massey, 1993, 재인용: 이영민, 2013)처럼 엘리트 계층은 고도의 교통수단과 정보통신력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고효율을 추구한다. 시-공의 압축성은 서로 동떨어진 공간을 서로 가깝게 하고 먼 거리로 인해 발생하던 시차까지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로써 시-공 압축을 실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넓은 지역에 더 빠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초지역성은 구성원의 다양성을 필요로 한다. 이주는 몸소 이동을 실천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무대가 되는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주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중첩되고 교차되는 현상이다. Gielis(2009)의 연구는 이주 현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이주자들의 경험, 이동 패턴,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주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주 형태와 이주자들의 영향력이 밝혀진다.

다섯째 초지역성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De Haas(2010) 등은 도착지에서 자원을 획득한 이주자들이 송금 경제를 통해 출신지를 지원하고, 이로써 출신지와 도착지 모두에서 발휘하는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했다. 이러한 영향력은 문화나 역사적 맥락에 의존해 있으며, 초지역성이 인종·성별·계급의 차별과 같은 사회적 현상에 깊게 연관돼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초지역성은 이주의 효과인 동시에, 불평등 해소의 수단으로 작동하여 지역과 지역이 노동력 및 자본을 교환하는 관계로 진입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일반적인 초지역성의 특성을 두 지역살이 역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각 특성이 각별히 두드러지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 특성들끼리 조합되고 융화되어 새로운 성격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같은 관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존 연구가 밝힌 초지역성이 두 지역살이 안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된다는 것이다. 두 지역살이의 초지역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기존 연구의 초지역성에서 발견되는 연결성은 두 지역살이에서는

‘across’의 장소감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연결 상태에 놓인 두 지역 거주자가 느끼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모호한 소속 의식이며, 장소와 장소를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다는 임시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두 지역 거주자들은 두 거주지를 짧은 주기로 번갈아 살면서 지속적으로 공간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두 지역을 연결하는 효과를 강화하기보다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채 계속 어딘가로부터 박탈되어 있다는 느낌을 소환할 수 있다.

또한 초지역성의 다중중심성은 ‘here-there’의 장소감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동시에 저기에도’ 있고자 하는 역동적인 소속 의지이며 두 곳의 물리적 거주지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중중심은 두 거주지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현실적 기반이자 두 지역의 비교 속에서 각 지역의 가치가 비소로 발현되고 서로를 완성시키는 상호보완성을 띠게 만들 수 있다. 두 지역 거주자는 적극적으로 두 지역을 모두 누리하고자 양쪽에 뿌리내리고자 하며 안정적인 거점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세 번째 시-공 압축성은 ‘in-between’의 장소감으로 전환된다. 이것은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대안적 장소 기획이다. 국내 두 지역살이의 이동은 짧고, 빠르고, 잦은 주기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긴 호흡으로 이동, 적응, 활동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대신 시-공을 효율적으로 압축하여 여러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촉발한다. 이 과정에서 두 지역 거주자는 지역과 지역 사이의 새로운 시-공을 탐색한다.

앞서 살펴본 초지역성의 특성 중 나머지 두 가지인 참여자 다양성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두 지역살이의 특정한 측면을 통해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요소는 아니었다. 그러나 면담 내용에 불규칙적으로 등장하여 모든 측면에 광범위하게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심으로 드러나는 세 가지 요소에 다양성과 상호의존성이 보조적으로 결합하여 <표 11>과 같이 두 지역살이의 초지역성으로 변환된다.

표 11. 기존 연구 대 두 지역살이에서의 초지역성<sup>1</sup>

기존의 연구에서의 초지역성 주요 특징	두 지역살이의 초지역성으로 변환	
a) 연결성	a, (d, e)	→ “across”
b) 다중중심성	b, (d, e)	→ “here-there”
c) 시-공 압축성		
d) 참여자 다양성	c, (d, e)	→ “in-between”
e) 경제적 상호의존성		

## 2. 관계적 초지역성 - ‘여기’에서 소외되고 ‘저기’에서 이탈된 연결주체

‘across’의 초지역성은 계속 경계를 관통하며 어디에도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험이다. 이것은 관계적 측면을 통해 주로 드러난다. 두 지역 거주자들은 두 거주 지역을 거느리는 결과로 ‘여기’에만 있을 수도, 또는 ‘저기’에만 있을 수도 없게 되어 관계로부터 이탈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지역과 지역을 접합시키는 시도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장소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국제 이동에 비해 빠르고 편리한 국내 이동의 특성에 기인한다. 국내의 스케일이 두 지역 거주자가 계속 어딘가를 관통하게 만들며, 지속적인 이동 상태와 부유 상태에 묶어두기 때문이다. ‘트랜스(trans)’의 경계 초월적 성격이 ‘국내’라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과 만나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닌 모호한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두 지역살이에서 지역 연결이 발생하면서도 사실상 이 연결을 단단한 매듭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두 지역 거주자의 삶 내부에서 연결과 통합을 지연시키는 모순을 낳게 만든다.

두 지역살이에서 얻는 경험과 인맥은 그 자체로 보다 풍부한 정보와 질 높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두 지역 거주자들은 그 이면에서 관계의 결핍을 경험한다. 주기적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야 하는 삶은 외로움과 정서적 고립을 초래하며, 가족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한 도움을 주고받기 어렵게 하고 자녀와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10년을 여기 있었고 연극협회 소속도 올해 서울에서 ○○으로 바꾸었어요. 서울 지인들이 “안 돌아올 셈이냐?” 하더라구요. 서울의 주류 연극인이었고 서울 기반으로 활동을 많이 할 법한 사람이 왜 구태여 소속을 바꾸냐는 거죠. 그런데 인적 네트워크가 저는 이제 ○○에 더 많아요. 임기 끝났다고 ○○을 떠나 버리면 이 네트워크를 버리는 것인데... 그것보다 계속 여기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두 곳이 연계되는 프로젝트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서울에서는 계속 나를 기억하고 찾아 주니까.”

(참여자 V, 50대 남, 예술감독, 2023년 2월 3일 면담)

참여자 V는 고향이면서 업무적으로도 오랫동안 몸담았던 서울에 인맥을 넓게 형성하고 있지만 확장 거주 지역에서도 10년 이상 생활 중이다. 자신의 두 지역 활동을 통해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로 미래를 더 풍부하게 설계해 보려는 희망사항에 반해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불편은 가족과의 단절이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내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 못 보내고, 다른 지인들과도 멀어지고 하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방에서 찾은 여유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정서적 외로움도 큰 단점이예요. 아무리 통화를 하고 해도... 그런 단절감을 감당해야 해요. 가족과의 단절, 고향과의 단절...”

(참여자 V, 50대 남, 예술감독, 2023년 2월 3일 면담)

이 같은 내용은 두 지역 거주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감정적 단절, 서로에 대한 걱정을 보여준다. V를 비롯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공통적으로 ‘단절’, ‘거리’라는 어휘를 되풀이해 썼다. 특히 두 지역살이를 하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 및 죄책감을 표현할 때에 자주 언급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적 성장과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도 자녀와의 유대나 가족 체계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체감한다.

“친정이 서울인데 결혼 후에는 세종에서도 오래 살았죠. 남편이 부산에 부임하면서 집을 다시 옮겼어요. 저번 명절에 세종 집을 공사했는데 그거 하고 또 바로 부산 가서 명절 쇠느라 몸이 두 개여도 모자라겠던데요? 그래도 제 공연[서울]에 세종이랑 부산에서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막상 서울에 있는데 제 공연에서 서로 알게 된 세종이랑 부산 학부모들이 계속 연락하더라구요. 과수원을 같이 알아보고 그런대요.”

(참여자 B, 50대 여, 공연연출가, 2023년 2월 3일 면담)

참여자 B는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지역에서 두 번의 두 지역살이를 경험했다. 두 번 모두 보조적인 거주지는 서울에 있었다. 교직자인 남편이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고 나서도 자녀 교육을 서울에서 지속하기 위해 서울을 오가게 된 것이다. 남편이 있는 지방 도시를 중심 거점으로 하고 그곳에 주택을 매입한 결과 스스로 여러 도시를 다니며 주택을 소유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B는 직접 지역을 방문하고 지인들과의 교류를 이어간다. 또한 본인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인맥이 서울에서 연결되고 생산적인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B 역시 한편으로 가족이 흩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느낀다.

“남편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요. 저는 서울에 있는 게 익숙하고 편하고, 작은 애 뒷바라지 할 사람도 필요하니까 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큰 애는 학교가 부산이어서 남편이랑 본가에 있어요. 큰 애랑 시어머니를 주로 남편이 챙겨요. ‘본인 아이랑 부모니까 본인이 돌보는 건 당연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안쓰럽죠. 큰 애한테 엄마 역할 못하는 같기도 하고.... 작은 아이랑 부산에 가면 괜 거기 집 같지 않대요. 우리 가족이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닌데 본가를 어색해 해요.”

(참여자 B, 50대 여, 공연연출가, 2023년 2월 3일 면담)

참여자 B는 ‘미안함’의 감정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부산을 “본가”라고

일컬어 1차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도 서울이 더 좋고 편하다는 발언은 이와 대조적이다. 이것에서 두 지역살이가 정서적 부조화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B는 “아내 역할”, “엄마 역할”과 같은 표현을 통해 가족을 향한 애정과 책임을 표한다. 그러나 두 거점 중 더 본인의 활동에 더 적합한 지역을 선택한 결과로 가족 관계가 일부 희생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녀가 본가를 집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묘사를 통해 본인이 처한 박탈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기존에 속해 있던 전문가 집단에서 느끼는 박탈감도 두 지역살이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다. 지식이나 문화 계통의 리더십이 수도권에 집결돼 있는 현실은 지역 적응을 지체시키고, 이들이 수도권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우려하게 만든다.

“대구에서는 당장 친구도 없고, 고립감이 들더라고요. 가끔 행사에서 만나면 동료들은 서울에서 본 게 있는데 나는 없고. 지식의 본질이 그래요, 실제로는 살짝 말하는 도중의 뉘앙스 같은 걸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지식산업의 특징이면서 그건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거예요. 지식의 비가시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고 서울에 자주 가면 네트워크가 막 형성이 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잘 지내지, 부산에서?” 하면서 잘 끼워주지 않아요.”

(참여자 D, 40대 남, 교직자, 2022년 6월 4일 면담)

이와 같이 소속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에도 자주 ‘고립감’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때의 고립감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료들이나 그곳에서 유통되는 정보로부터의 소외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료들 사이에서 느끼는 고립감 외에도 업무의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서 역시 한 곳에만 있을 수 없는 현실이 어려움을 야기한다.

“○○○○은 서울에서 등록된 기업이고 앞으로도 서울 기업으로 유지할 예정인데, 서울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돌발 업무가 생겨요.

꽤 자주. 그런데 너무 멀어서 즉각 처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쪽 서울에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에게 왜 딜레이가 발생하는지 매번 설득하기도 어렵고요. 반대로 진주에서는 우리를 또 서울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게 파견된 회사원으로 기러기처럼 혼자 떨어진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진주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주니까 소외감이 들고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도 예전보다 덜 재밌는 기분이예요.”

(참여자 S, 30대 여, 디자이너, 2023년 1월 16일 면담)

참여자 S는 자녀가 없는 결혼가족으로 남편과 함께 서울과 경남을 오가며 1인 기업을 운영 중이다. S는 지방 도시에서는 자신들이 ‘서울 사람’에 불과한 반면 서울에서는 지방 도시에 관한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데에서 불편을 호소한다. S의 부부는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았지만 COVID-19와 더불어 지방 도시에서 남편의 농사를 병행하게 되었다. 6개월 동안의 장기 방문과 꼼꼼한 지역 조사를 한 뒤에 두 지역살이를 결정한 만큼 선택에 대한 자부심과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이들 부부는 지역과 서울의 이점을 모두 취하면서 두 곳을 연결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서 확인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워한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를 서울에 두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확장 거주 지역에서 이루어져 업무 처리에 시차가 발생하는 불편을 겪는다.

이처럼 두 지역 거주자는 지역에서 기존 네트워크의 부재를 실감하고 고립감을 느끼며,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에 봉착한다. 그러나 지역과 지역을 비교하고 나와 타인의 연결에 실패하면서 느끼는 좌절감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트랜스로컬 네트워크의 연결성 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환기한다. 참여자들은 두 지역살이를 통해 알게 된 동료,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언급하는데, 기존 거주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한 고유한 관계를 통해 낯선 확장 거주 지역에 대한 호감을 강화하거나 동병상련의 동료를 찾음으로써 이방인으로서 겪는 단절감을 완화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는 트랜스로컬리즘이 권력 관계와 불평등을 간과한다고 주장한다(Schiller and Salazar, 2013). 예를 들어 일부 이



주민은 다른 이주민과 동일한 네트워크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확장 거주 지역의 차별과 배제 때문에 더 많은 단절을 겪기도 한다. 이것은 트랜스로컬리즘이 개인의 선택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거주와 이동성을 형성하게 두는 것보다 구조와 제도의 개입도 필요함(Faist, 2009)을 시사한다.

### 3. 물질적 초지역성 - ‘여기’와 ‘저기’가 상호보완하는 거주지

‘here-there’의 초지역성은 두 거주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화를 탐색하는 경험으로 면담자들에게서는 물질적 측면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초지역성의 다중중심성으로 파악한 특성과 연관된다. 다중중심은 주거지가 도시, 시골, 휴양지, 국내, 해외 등의 지역으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가족, 경제, 교육 등의 이유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드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다중적인 주거지 선택과 이동 패턴은 이주자가 국가나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여 여기에 있는 동시에 저기에도 있도록 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이주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유발하고, 이주 현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중중심에 관한 이해는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이주를 분석하는 데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했다.

두 지역살이에서도 두 곳에 걸쳐진 복수의 주거지가 바탕이 되어, 두 지역 거주자들은 더 폭넓은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 다른 지역의 가치를 조화시킨다. 특히 국내의 두 지역살이는 일정한 주(週) 단위로 일상의 지평을 확장하여 더 많은 경험적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해안·도서지방, 산간지방이 두루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 안에서 지역마다 자연환경이 다양한 편이다. 두 지역살이를 통해 대도시를 벗어나 지역이 갖추고 있는 독특한 자연적·문화적 여유를 풍부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추가된 거주지는 두 지역 거주자의 출퇴근을 보조하는 거점일 뿐 아니라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세컨드하우스로 기능할 수도 있다. 워라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가족의 여가활동, 웰니스에 대한 태도, 주거가치 등 라이프스타일(구혜경·조희경, 2015)에 대한 인식이 환기됨에 따라, 세컨드하우스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모델

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두 지역 거주자는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두 지역에 머무는 목적과 기능을 다르게 배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두 지역에서의 체류 시간을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두 지역이 서로를 상호보완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리와 상호보완은 근무일에는 일에만 집중하고 휴무일에는 가족 돌봄과 휴식, 여가에만 집중하며 각각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장점을 가져온다.

“대전(2차 거점)은 일하는 곳이고, 수원(1차 거점)은 쉬는 곳이죠. 대전은 한 4~5일 일에 초집중하고, 금요일은 새벽 여섯 시까지 나왔다가 열 시에 수원으로 올라가요. 원래 하루 네 시간 이상 사무실 근무를 하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숨통이 좀 트여요. 주말에 제가 조카들을 돌봐야 해서 가족들이 저를 찾거든요. 평일에 일을 바짝 해 두면 집중도 더 잘 되고 금요일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트랜스로컬이 성립하려면 근무시간이 유동적이어야 해요. 수원 집에서만 할 수 있는 뭔가를 계획할 수 있어요.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요새는 레고를 개조해요. (...) 불편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집이랑 일이 분리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참여자 E, 30대 남, 연구원, 2022년 6월 4일 면담)

참여자 E가 면담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역에 의한 직업 활동 대 사생활의 분리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무조건이었다. 가족에게 요구되는 자신의 역할과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일터에서 방해 받지 않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일터와 집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평일의 업무가 주말까지 미루어지거나 야간·주말의 돌발업무에 대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너무 비탄력적이면 지역 간 이동에 제약이 된다. 그러나 E와 같이 업무 중심의 공간과 생활 중심의 공간이 멀리 떨어져 사전에 계획된 왕복만 가능할 경우 두 공간의 구분과 전환이 확실해지는 효과를 낳는다. 그는 또한 통행량이 증가하는 금요일 오후 시간대를 피해 효율적인 이동을 계획할 수 있었다. 한편, 참여자 A의 경우 처음에는 확장 거주 지역에서 고립감을 느꼈으나, COVID-19를 계기로 연구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지역의 분리가 주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내려와 있는 동안에는 거의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필요한 책이나 자료가 다 여기 와야 있어요. 여기든 서울이든 집에서 뭐가 잘 안 돼요. 자료가 여기 있나 하고 보면 다른 데 가 있는 때도 많고, 아니면 약속이 생기다든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가족행사나 집안일을 챙기러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거기선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걸 해요. 그리고 코로나 때에는 비대면 수업 촬영하느라 직장에 내려와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처음 몇 년은 서울에서 떨어져 지낸다는 고립감이 심했죠. 그런데 결국 일에는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진주에서는 늦게까지 연구실에 있는 편이라 일하기 좋아요.”

(참여자 A, 40대 남, 교직자, 2022년 7월 1일 면담)

A에게 또한 기존 거주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일과 확장 거주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되었다. 서적과 강의용 촬영 장비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실로 이전 및 집중시키면서 확장 거주 지역이 업무에 특화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연구실이라는 특정하고 구체적인 물질 자원을 통해 두 지역의 차이를 체감하고 각각에 서로 다른 초점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 분배와 조화는 다른 참여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

“부산에 있는 집[오피스텔]은 생활용품이 떨어졌을 때 택배 받는 용도인 것 같아요. 달리 사용하지는 않아요. 집이 두 군데에 있다 보니까, 책 같은 연구에 필요한 것은 연구실에 모아두었고요. 연구실에 오히려 더 정성을 들여요. 오피스텔은 자고 씻기만 하는 곳이에요. 사적인 물건은 다 용인에 있어요. 완전히 이분할이죠. 그래서 학교가 제게 중요해요. 연구실이 더 집 같고 편안해요, ‘올 곳에 왔다’ 하는 느낌. 학교에 있으면 학생들하고 교류도 더 생기고요.”

(참여자 O, 40대 여, 교직자, 2023년 1월 5일 면담)

이 참여자는 확장 거주 지역에 직장과 출퇴근을 위한 오피스텔이 있다.

그는 직장에 있는 연구실이 오히려 오피스텔보다 더 친숙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고 사용하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적인 물건은 용인[기존 거주 지역]에”, “연구에 필요한 것은 연구실에” 보관하며 오피스텔은 단순히 택배를 수령하는 정도라면서 직장의 중요성을 서술하여, 그가 느끼는 장소감이 물질 자원과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암시한다. 또한 중요한 물건을 많이 두는 곳에서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교류를 유발하여 지역에 대한 소속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는 앞으로 가족들이 확장 거주 지역에 더 자주 방문하여 세컨드하우스를 함께 향유할 것을 기대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규칙적으로 왕래할 수 있는 근무 여건에서 큰 불편이 없다고 강조한다.

“정말 잠만 자는 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랑 놀러가기도 하는 해운대 세컨드홈으로 만들자는 게 원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직장이 해운대에서 멀다 보니까 좌절되었어요. 그리고 아이 방 만들기가 어려워서 또 좌절. 지금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원했던대로 지역을 활용하지 못한 셈이죠. 침대도 매트리스만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여기 집을 잘 구축해서 아이도 오게 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일주일 한 번씩, 월요일 새벽에 부산으로 내려 오고 목요일 밤 늦게 용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스케줄이에요.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참여자 O, 40대 여, 교직자, 2023년 1월 5일 면담)

그는 공간 자원의 활용을 통해 두 지역이 서로 다르게 기능하면서도 가족의 웰빙을 확장하는 두 지역살이 실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그가 두 지역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주 1회 이동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 일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무 여건은 두 지역에 모두 물리적으로 참여하고, 거주지를 계획하여 조화를 꾀하는 실질적인 기반이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지역살이를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들어 했다. 참여자 대부분이 전문 지식을 전제로 직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전문성을 실현

할 수 있는 시간·공간의 확보는 이들이 두 지역살이를 지속하는 커다란 동력일 것이다. 그러나 두 곳의 지역을 거느리는 데에는 또 다른 물질적 측면이 존재한다. 주거비와 생활비의 증가가 그것이다. 두 지역 거주자들은 물자 관리에서 혼란을 경험한다. 또한 한쪽 집에 머무는 동안 생기는 다른 쪽 집 관리의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한다.

“옷장이 터질 것 같아요. 똑같은 바지가 이쪽 집에도 있고 저쪽 집에도 있고, 잘못하면 한쪽 집에만 둘 다 모여 있어서 똑같은 걸 또 사게 되고. 그리고 양복 같은 건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양쪽에 하나씩은 있어야 하거든요. 자꾸 살림이 늘어나요. 짐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살 게 많아요.”

(참여자 C, 40대 남, 교직자, 2022년 4월 22일 면담)

“일반적인 샐러리맨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임금 체계죠. ‘저러고도 남나?’ 싶을 텐데, 솔직히 그 정도 거주와 이동 비용 빼고도 살만하니까 초지역적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오래 가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거주한다는 건 단순히 잠만 잔다는 건 아니고 안전도 보장돼야 하거든요. 남자들이 이런 생활을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참여자 D, 40대 남, 교직자, 2022년 6월 4일 면담)

이 같은 면담의 내용이 뜻하는 바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전제돼야 두 지역살이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지역 거주자 중에는 확장 거주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등을 임대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주거비 및 생활비가 두 지역에서 이중으로 발생하는 일이 잦다. 구술의 내용에서는 각종 생필품, 의류, 가구와 같이 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일일이 가지고 이동하기에는 번거로운 물건들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두 지역살이에 경제적 풍요로움과 비효율이 겹치는 물질적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의 두 지역 거주자는 남성에 비해 수가 적지만 이들에게는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낯선 지역에서의 안전을 염려하여 안전한 주거지를 위해

좀 더 높은 주거비를 지출한다. 기혼 여성의 경우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 가사도우미, 교육기관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가사와 육아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 4. 시간·공간적 초지역성 - ‘여기’와 ‘저기’ 사이 제3의 장소

‘in-between’의 초지역성은 두 거주지 외의 제3의 공간을 추구하게 되는 경험으로 시간·공간적 측면을 통해 주로 드러난다. 이는 기존의 초지역성 연구가 포착한 엘리트 계층의 특성과 긴밀하다. 이때의 엘리트 계층은 비행이나 고속 열차 등 고도의 교통수단에 접근이 쉽고 정보통신 기술 자원을 풍부하게 확보한 계층이다. 빠르게 지역을 왕래할 수도 있고, 한 곳에서 원격 통신으로 국제적인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서 먼 거리도 짧게, 긴 시간도 빠르게 단축시키는 시-공 압축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초지역적 당사자가 여기도, 저기도 아닌 또 다른 어떤 곳에서 활동하고 거주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국내의 두 지역살이에서는 반복적인 지역 이동과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한 효율 모색을 통해 이 점이 드러난다. 일부 두 지역 거주자는 자신이 끊임없이 이동 중인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동 자체를 주거의 중요한 일부로 여긴다. 따라서 이동함으로써 얻는 효용뿐 아니라 이동하는 동안의 안정감도 중요시하고 이동 시간과 공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향은 여기에도, 그리고 저기에도 소속되지 못한다는 불안과 박탈감에서 한 걸음 나아간 적극적인 장소 기획으로 보인다. 이동 자체를 장소화하는 인식과 목표는 두 지역 거주자가 이동의 시간과 공간까지 거주 의 일부로 포함시켜 거주 영역을 현실적이며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게 한다.

“매주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서는 파트너의 직장이 여의도에 있어서 여의도랑 김포 공항 사이에 집을 구하려 애썼어요. 제가 다시 제주도에 가는 날이거나 파트너가 제주에 왔다가 서울에 갈 때는 보통 새벽에 비행기를 타는데 그 시간에 대중교통이 안 다녀요. 그래서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라이드 해 줘야 했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소모가 컸어요. 매번 3일 동안 쓸 짐을 싸고, 세팅

하고, 다시 가져오고 하는 게 번거로웠고요. 그래서 [제주 거점으로 부터] 철수하려고 결심하고 제주에 갔다왔던 제 차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다른 일이 또 생겨서 몇 달 더 제주도를 다녔어요. 제주에 갈 때마다 차를 렌트해야 했고. 매번 떠도는 느낌이었죠. 그만큼 중간에 비중을 두려고 했어요.”

(참여자 Y, 30대 여, 예술강사, 2023년 2월 16일 면담)

참여자 Y는 매주 서울과 제주에서 절반씩 생활하는 두 지역살이를 경험했다. 그는 비행기, 자가용, 대중교통, 렌터카 등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조합하여야 두 목적지 사이를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동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다. Y는 교통수단을 찾는 모든 단계와 짐을 꾸리고 옮기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매번 떠도는 느낌”을 가졌다고 서술한다. 또한 “사이”와 “중간”을 언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에 관한 관념을 묘사했다. 그는 동거자의 출퇴근과 본인의 공항 이동을 모두 고려한 중간 지점에 집을 얻음으로써 시간과 체력의 소모를 줄였다. 또한 “떠도는 느낌”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중간’에 대한 새로운 고민으로 이어졌다. 한 곳은 집, 다른 한 곳은 방문지라는 느낌에 저항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장소감이 주는 극단을 상쇄하고 중간과 평형을 추구하려 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 Y가 채택한 방법은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과 제주에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이 최대한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었다. 양쪽에 비슷한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두 곳이 모두 집으로서 친숙해지고, 그렇게 된 뒤에는 어디에서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유지하는 일은 정교한 이동 계획을 요구했고 더욱 이동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계속해서 자동차를 렌트하고, 비행기를 예매하고, 새벽 공항으로 운전하고, 짐을 싸고 푸는 과정은 Y의 거주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 곳이 집이면 다른 한 곳은 방문지가 되니까 두 장소를 중재시키고, 중화시키고 평형을 이루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다가 차츰 이동 자체에 비중을 두었어요. 공중에 떠 있는 시간, 비행기 안, 거기에 있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더라구요. 전화가 울리거나 방해 받지 않으니까 중요한 일을 많이 처리했고, 내가 ‘사이 존재’라는 느낌

을 가장 강하게 받는 곳이었어요.”

(참여자 Y, 30대 여, 예술강사, 2023년 2월 16일 면담)

Y에게 중간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의 중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과 스케줄의 평형까지 의미한다는 점에서 위치와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중의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두 곳의 거주지와 다양한 교통수단 사이에서 무게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을 Y는 이동 공간 자체에서 찾게 되었다.

참여자 Z의 경우에는 시-공 압축성이 다소 다르게 드러난다. 교통과 통신 자원을 가진 엘리트 계층의 특권이라기보다 이동을 강요당하는 불편과 불평등으로 인식되었다. Z는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대학 강의를 하고, 국내·외 미술계에서 책임자급 큐레이터 지위에 있다. 그는 지식 산업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이 없는 편에서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비판한다.

“아무리 엘리트여도 권력이 없으면 많이 움직여야 해요. 애들[자녀들]한테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작업실을 얻었는데 학교는 또 신촌이잖아요. 운전해서 편도 두 시간인데 매일 다니기 힘들어요. 학교 기숙사를 얻을까 하고 알아보는 중인데, 만일 그렇게 되면 집, 작업실, 학교, 김포 친정, 여길 다 다녀야 하고 일도 해야죠. 돈 버는 일이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집이든 어디든 들어가 잘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죠. 일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기가 종종 찾아와요. 그땐 하루에 몇 킬로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어디서 끝나든 제일 가까운 데로 가는 거죠. 결국 빈곤 문제예요. 제가 너무 빈곤해서, 권력이 없어서 많이 다니는 거예요.”

(참여자 Z, 30대 여, 교직자, 2023년 2월 17일 면담)

참여자 Z는 경기도에 있는 집과 친정에서 두 지역살이를 하면서 소속 대학의 기숙사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했다. 자녀 등하교 지원, 업무용 자료 운반 등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자가용 이동을 선호하는



데 이동 거리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Z가 왕래하는 경기도 남부와 서부, 그리고 서울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운전과 교통체증 때문에 가깝지 않게 느낀다. 여성이자 엄마, 딸, 강사, 직업인으로서 자녀 돌봄, 부모 돌봄, 학업과 직업을 모두 다른 지역에서 수행하는 Z는 이 거리를 권력과 연결시킨다. 또한 일이 생기는 곳에 따라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동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을 무기력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활동 반경을 권력과 빈곤의 문제와 관련 지으며 여기에 숨은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동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두 거점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는 제3의 장소를 마련하고자 한다.

참여자 D 또한 이동이 유발되는 원인을 권력 불균형에서 찾으려 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3의 공간을 모색한다.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 다니는 건 아니죠. 저한테 권력이 있다면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제게 찾아오겠죠. 돌아가면서 평균 이틀씩 머물고 다니니까 계속 적응하는 시간 때문에 딜레이가 걸려요. 루틴 발휘가 안 돼요. 나중엔 지탱이 어려워서 세어 봤는데, 주당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열다섯 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낮선 곳에 와 있다’, ‘아싸[아웃사이드] 정신이 주는 영감이 있다’ 하면서 고통을 덜었거든요. (...)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적인 거주지를 찾게 된 것도 있어요, 이게 모든 고초를 경감하니까.”

(참여자 D, 40대 남, 교직자, 2022년 6월 4일 면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D는 ‘줌(Zoom)’, ‘개더타운(Gathertown)’, ‘유튜브(YouTube)’ 등의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게임 공간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서로 접목하여 원격 업무와 강의를 병행한다. COVID-19 확산 방지조치 기간에 이동량을 줄이고 한 곳에서 원격으로 일하며 가상공간을 실험하고 개척하였다. 그는 이곳을 제3의 초지역적 공간으로 여기고 여기에서 두 지역살이의 불완전이 보완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이동이 야기하는 부담은 여러 면담을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승용차를 운전하는 두 지역 거주자들은 “자동차 자율 주행”을 통해 운전으

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해질 것을 강조한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인사 제도의 유연근무제도<sup>15)</sup>, 혹은 이를 표방한 기업의 근무시간 조정은 교통 체증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어 이동 효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두 지역살이의 지속에 유의하다. 이들이 느끼는 이동의 부담과 신체적·정신적 피로는 사적인 만남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원거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무언가를 줄여야 하는데,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이 개인적 만남이라고 말한다. 이는 기존 네트워크로부터의 이탈을 아쉬워하면서도 가장 먼저 네트워크를 줄여야 하는 모순된 상황을 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화상 회의,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효율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 제 2 절 공간전략으로서의 초지역주의

### 1. 전략으로서의 초지역주의와 두 지역살이의 전략

초지역주의는 그 자체로 전략적이다. 두 지역을 오간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주자가 두 지역을 효과적으로 이동하고 두 거점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특별한 의도나 행동을 계획하는 것 역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2장을 통해 초지역주의는 서로 다른 지역들을 접합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주 양식이자 그 안에서 형성되는 삶의 정체성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초지역성과 초지역주의는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여 복수의 지역이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현상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거주 양식은 그 여러 가지 현상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초지역적 거주는 여러 가지 초지역적 현상 가운데 우리가 일상 속에

---

15) 공식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차출퇴근 및 선택·계량·원격·재택근무 등(인사혁신처)

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초지역주의의 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거주 영역을 넘어서는 인적 교류와 물적 소유권이 작동하는 현대적인 삶은 거주를 분열시킬 수 있다. 이를 테면 기존 거주 지역으로부터 먼 지역에서 취직, 집에서 떨어진 토지·주택·생산시설 등 재산 관리, 고향에 있는 노부모 돌봄 같은 요인들로 인해 한 사람의 생활에 여러 지역이 소환되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초지역주의는 그 자체로 이미 ‘이곳’과 ‘저곳’에 모두 개입하는 전략이며, 그것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따른다. 복수의 거점을 통제하는 방식,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에서는 초지역적 거주자 각각의 환경에 특화된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두 지역살이에서도 그만의 개별적인 세부 전략을 찾을 수 있다. 한 국경 안의 지역들을 오가는 점, 1일 왕복이 가능한 국토 면적을 이동 배경으로 하는 점 등은 이동의 밀도를 높이고 두 거점 사이의 시차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한 조건에서 초지역적 거주의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세부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선 절에서는 두 지역살이 경험에서 재구성되는 초지역성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이미 그 자체로 전략적 속성을 띠고 있는 초지역주의 위에서 새로운 전략을 이끌어낸다. 두 지역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연결·조화하거나, 제3의 공간을 등장시키는 것은 개별 두 지역 거주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미 주어진 초지역성이다. 여기에 두 지역 거주자가 적극적으로 두 지역에 다른 기능을 할당하거나 제3의 공간을 통해 불편을 감소함으로써 이것은 공간전략으로 변환될 수 있다.

두 지역 거주자는 이동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거나 이동 자체에서 효용을 얻고자 한다.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과 보조하거나 분열된 거주의 불편을 상쇄하고, 지역 간 이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생활의 질로 승화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 따르는 다양한 노력은 두 지역살이의 공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4장 2절에서는 두 지역 거주자가 확장 거주 지역에 어떤 전체성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두 지역살이의 공간전략에서 특정 유형과 특정 전략 간의 일대일 대응으로 수렴하지는 않는다. 중요성에 따른 1차 거점과 2차 거점의 구분이 고정돼 있지 않을뿐더러 각자의 상황에 다양한 전략이 수반되며,

그 관계가 유기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전략을 고려하고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두 지역살이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유의미하다. 이들은 주로 확장 거주 지역에서의 실내·외 공간에서 전략을 추구한다.

## 2. 미시전략: 이동성을 뒷받침하는 집 꾸미기

두 지역 거주자가 확장 거주 지역의 거주공간에 부여하는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식사, 수면, 세면 등 기초적인 생활만을 담당하는 실용적 공간, 다른 하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이다. 전자의 경우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는 실용성에 목적을 두고 불필요한 짐을 거의 두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는 별장처럼 친교와 휴양의 기능을 더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최대화하고자 양질의 가구와 장식품을 장만하기도 한다.

“방을 꾸밀 때 뭐, 가구라든지? 목직한 것으로 꾸미는 방법도 있는데 제 경우는 패브릭, 엽서, 포스터 같은 소품으로 취향을 드러내요. 옵션이 다 갖춰진 곳에 들어갈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림 한 점 사고 그런 것도... 그림을 사는 게 쉽지, 집 사는 게 쉽진 않잖아요. (...) 짐이 되지는 않는 걸로,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걸로.”

(참여자 G, 40대 여성, 문화기획자, 2022년 6월 11일 면담)

“특별히 관리라 할 것은 없어요. 집보다는 오히려 주차장에 투자하죠. 이 지역 오피스텔 중에 입주자 전용 주차장이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확장 거주 지역] 집에서는 무조건 다이소라든지 가성비 위주로 채우죠. 대신 거기[기존 거주 지역]는 것들은 질이 좋은 것들로 해요. 여기는 베이스캠프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원래 쇼핑을 할 때 ‘이게 좀 돈이 들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걸 사자’ 하는 주의였는데, 여기 와서는 언제든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들을 사요. 나중에 몸만 나가도 아깝지 않은 걸로요.”

(참여자 N, 40대 남성, 사업가, 2023년 1월 5일 면담)

G와 N 같은 참여자들에게 확장 거주 지역은 정서적인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2차 거점이다. 이들은 추가적인 거주지를 가급적 가볍고 단순한 공간으로 운영하여 이곳을 떠날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속이나 제약을 줄이려고 한다. 또한 1차 거점과 2차 거점 사이를 오가는 이동성을 훼손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집 안에 물건이 많아지는 것을 꺼리는 이들은 자가용에 많은 소지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물건에 대한 중복 지출을 줄이고 어디에서도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미시전략으로서 기민한 이동에 기여한다. 그러나 물자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찾을 수 있다.

“두 지역에 살려면 필연적으로 미니멀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게 멋있어 보여서 미니멀리스트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만 좀 줄이자는 거였는데 갈수록 없는 게 제일 편해요.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 쓸 수 있는 건 빌려 쓰고, 요새 공유 경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들 혼자 사는데 집집마다 세탁기나 오븐이 다 하나씩 따로 있는 것도 어떨 땐 낭비인 것 같아요. 혼자 쓰면 편하죠. 저도 뭘 빌리러 다니지는 않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참여자 P, 30대 여성, 문화기획자, 2023년 1월 10일 면담)

“책은 가지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이동 중에 휴대폰이랑 태블릿을 많이 봐요. 자료를 다 스캔해서 가지고 다니고, 요새 클라우드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다 보관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출력은 거의 안 해요. 거기에서 철수한다고 해도 별로 짐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영까지 운전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웬만해선 버스 타거든요. 버스에서 주로 전자책, 영화, SNS 많이 하고, 통영에 TV 없으니까 태블릿으로 넷플릭스 많이 봐요. 그러니까 두 지역살이 하면서 생활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전한 것 같아요. (...) 꾸민다기보다 가족 사진 하나 있어요.”

(참여자 K, 60대 남성, 특수공무원, 2022년 12월 17일 면담)

이들은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집의 정서적 가치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가벼운 소품으로 집안을 장식하거나 서적과 자료의 대부분을 디지털화하였으며, 디지털 기기를 통해 위치에 관계없이 자료에 접속하고 온라인 오락 매체를 즐기는 것으로 기동성을 추구한다. 일부 참여자는 짐을 풀지 않은 채 창고에 대기시킴으로써 이동에 대비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확장 거주 지역에 적극적인 물질적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제 주변엔 저처럼 주중에만 여기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 박사라고 있는데 그 집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저는 뭔가 많이 사 봤어요. TV, 식기세척기, 식탁... 저는 양쪽에서 다 쉬고 싶어요. 아이들이 처음보다는 오는 게 땀해졌지만 여길 가족 별장처럼 만들려던 거였어요. 그래서 공을 많이 들인 편이에요. (...) 그런데 저 혼자서는 교수 연구실에 머무는 시간도 많아서 강릉에만 거점이 두 군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만나는 약속은 주로 거기서 잡아요. 저는 거기도 막 카페 같이 꾸미려고 노력해요.”

(참여자 H, 40대 남성, 교직자, 2022년 6월 18일 면담)

참여자 H는 평소에 주변에서 다른 두 지역 거주자들을 관찰해 왔다. 그는 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전략을 설명했다. H는 두 지역 거주자가 크게 확장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을 간소화하려는 경우와 자신처럼 그곳을 “별장”으로 가꾸려는 경우로 나뉠 것이라는 의견을 들려주었다. H 또한 확장 거주 지역에 독립된 연구 공간을 가지고 있어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바탕으로 지역의 의미를 구성했다. 나아가 업무와 관련된 만남을 보다 풍성하게 하고자 연구실을 “카페와 같이 꾸미려고” 하는 공간전략을 취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너무 바빴는데 대전에서는 퇴근 후에 별로 할 게 없더라구요. 집에는 방이 둘이나 있는데 그것도 너무 큰 것 같았어요. 제 공간전략이라고 한다면 고양이를 입양했던 것? 첫 동물 입양이었

고, 처음으로 해 본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집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동물도 기를 수 있고, 아내랑 애들도 내려오면 호텔 온 것처럼 지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를 더 좋아했던 것도 같고.”

(참여자 AB, 40대 남성, 연구원, 2023년 3월 5일 면담)

참여자 AB는 확장 거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방 두 개가 딸린 집이 너무 크다고 느꼈다. 서울에 있을 때에 비해서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과 공간의 이질감을 상쇄하기 위해 그가 택한 전략은 반려동물 입양이었다. 참여자 K의 경우 반려동물을 기르고 싶어서 두 지역살이를 진지하게 고려했고, 참여자 X는 반려동물을 지속적으로 돌보기 어려워 두 지역살이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모두 감안하면 반려동물은 새로운 지역의 생경함을 극복하게 해 주거나 기존 거주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 AB는 반려동물을 통해 추가적인 집에 생기를 불어넣고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변모시킨 경우다.

이와 같이 집 꾸미기는 두 지역 거주자들이 지역 적응과 두 지역 간 이동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미시전략이다. 확장 거주 지역에서의 집은 지역에 대한 생소함을 중화시켜 주는 자신만의 공간이며, 그 지역에 머무는 동안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기존 거주 지역으로 무사히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태도는 상반되는 두 가지 행동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이동에 방해되지 않게’, ‘잠만 자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몸만 빠져나올 수 있는’과 같은 표현을 통해 이들이 물질적 낭비를 최소화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이 놀러올 수 있는’, ‘별장처럼’, ‘카페 같이’, ‘아늑한’, ‘여기도 내 집’과 같은 표현에서는 확장 거주 지역을 적극적으로 자기영역화하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이들은 인테리어 공사나 가구·가전 제품 구비를 통해 추가된 어메니티(amenity)를 생성하고 확장 거주 지역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려 한다. 이들에게 확장 거주 지역은 경제 활동만을 위한 기능적 공간이나 고정된 2차 거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1차 거점의 역할을 이어받거나 장차 그렇게 될 가능성을 가지는 곳이다. 이들을 종합하면 실내전략은 가족에게 빨리 복귀하거나 그 반대로 가족 관

계를 끌어오기 위한 행위로서 관계적 결핍을 보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경계를 넘나드는 초지역성이 주거 공간의 목적이나 성격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가변성을 유발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가변성으로 인해 ‘여기’와 ‘저기’가 상호보완됨을 알 수 있다.

Brickell and Datta(2011)에 따르면 이동성과 고정성은 상호작용하여 장소를 표현되고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초지역적 주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함에 따라 각 장소의 독특한 특성과 속성을 마주하게 되며, 장소에서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변위를 넘어 문화적인 감각과 사회적인 관계를 드러내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소들을 계획하고 연결하며 변환시키는 원리로서의 이동성(Hedberg and do Carmo, 2012)은 초지역적 거주자의 한 단면을 형성한다. 두 지역 거주자들이 취하는 실내전략에서도 이동성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동성은 두 지역 거주자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다양한 장소에서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이들이 일상을 구축하는 방식에 개입한다. 예를 들어 집안의 구조와 배치를 결정하고 가구와 소품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동성을 고려하여 거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취향과 요구에 부합하는 삶으로 생활의 질을 개선하거나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커뮤니티와 연결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이동성을 고려한 실내전략은 궁극적으로 두 지역 거주자들의 교류와 소통을 지원한다. 나아가 이동성과 고정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공간 계획, 주택 디자인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1인 가구의 모습으로 확장 거주 지역에서 살아가는 두 지역 거주자들의 이동성과 교통성을 지속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동의 편리와 간소화를 증시하는 이들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위치와 이용성을 계획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초지역적 주체들의 행동과 이들이 추구하는 상호작용은 사회적 네트워크 디자인 정책에 관한 의의를 제시한다.



### 3. 거시전략: 네트워크 결절을 찾는 이웃 만들기

한편 거시전략으로는 집 바깥에서 펼쳐지는 전략으로 이웃 만들기, 단골 장소 개척, 동호회 활동 참여 등을 포함한다. 이것은 자신을 외부인에서 내부인으로 탈바꿈하고 지역 구성원 자격을 얻는 과정이자 지역과의 우정을 쌓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지역살이에서 거점 확보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 확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두 지역 거주자들은 집 안에서만 이동과 적응의 결합을 모색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역의 대표 행사에 동참하여 지역의 분위기를 익히고 단골 식당·가게·미용실 등을 개척하여 지역주민의 이웃이 되고자 한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성회에 가입을 했어요. 집회를 함께 갔고, 기차역에서 함께 선전전도 하고. 저는 그러면서 정을 붙인다고 생각했는데 (...) ○○여성회에서 좋아해 주셨어요. 나중에 서울에서 만났을 때 “재는 이미 우리 애였다.” 하면서요. 우리만 지역에 정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에게 정붙이더라구요.”

(참여자 M, 40대 여성, 독립연구자, 2022년 12월 28일)

참여자 M은 결혼 후 남편의 활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의 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두 지역살이를 하게 됐다. 그는 남편과 가정이 있는 확장 거주 지역을 1차 거점으로 전환하고 이 지역과 가까워지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했던 M은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데에 익숙하고 “몸에 밀착시키고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짐”만 싸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오랫동안 그것이 그에게는 집이었다. 두 지역살이를 하면서 그는 집보다 지역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기를 원하며, 지역 참여를 통해 두 지역살이를 안정화시키고 있다. 서울이 고향인 그는 경상북도에 오기 전에는 “경주는 수학여행 가는 곳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은 집에서 30분 거리인 것이 너무 신기하다”며 외부인이었던 과거의 시선과 내부인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선을 교차시켰다. 지역의 재발견이나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은 M뿐만이 아니다.

“동네하고 친해지려고 했던 일은 식당 발굴이요. 가장 많은 소문들이 무성하게 전달되는 곳이니깐요. 그들과 이야기 나누게 되고 밥값 계산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은 생활문화동호회의 사무공간 방문하면서 티타임 나누고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직장에서 갖고 있는 유관기관과 관계 맺으면 그들의 행사에도 참석해 주고, 그것도 전략이에요.”

(참여자 T, 50대 남, 문화정책 전문가, 2023년 1월 16일 면담)

참여자 T는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페스티벌 참여차 경북 지역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일할 결심을 하고 5개월 가량 두 지역살이를 준비했다. 여러 차례 사전 답사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후 가족들과 함께 두 지역살이를 시작했지만 가족들은 7개월 만에 기존 거주 지역에 영구히 돌아갔다. M은 아내가 지역사회와의 융화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그는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지역과 연대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 역시 거시전략으로서 접근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지역에는 유희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잘 안 알려주죠. 관사도 일반 직원들한테는 잘 안 줘요. 여기에 대한 행정의 태도도 바뀌어야 해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주비를 주게 돼 있는데 안 줘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과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좀 연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죠. 공동의 문제죠. 삶의 질이 탈바꿈할 수 있는데, 버려진 집도 활용하면 좋잖아요. 주거, 교통 등 내려가자마자 탁 세팅이 되어야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데 안 돼 있으니깐 그걸로 2~3개월 소요되고요.”

(참여자 T, 50대 남, 문화정책 전문가, 2023년 1월 16일 면담)

T는 여러 번의 두 지역살이 경험에서 지역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주비 지원과 유희공간 활용 관한 그의 언급을 통해 두 지역 거주자에게 주거와 교통이 중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두 지역 거주자 개인의 경제적 여유로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여길 것을 제안했다. 지역 정서와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지역민과 공동으로 해결해야 지역과 진정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두 지역살이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킹에 대한 언급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도 확인된다.

“연구실은 학교 안에 있는 섬 같은 곳이에요. 제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마음먹지 않으면 진짜로 지역을 알기는 어려워요. 무슨 혁신도시, 에코시티, 신시가지, 법조인타운 그런 데 보세요. 직장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 그 지역에 불일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평일 저녁 여덟 시 이후나 주말에는 다 올라가고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여의도처럼요. 그리고 가게들 인테리어도 세월의 단련을 거친 게 없잖아요. 역사적 공간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시간이 더 흐르면 해결될까요? 이게 과도기적인 것인지... 저는 좀 회의적이지만 트랜스로컬라이즈드[translocalized]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겠죠. 20년이 흐르면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걸 잘했다고 할지도 몰라요.”

(참여자 C, 40대 남, 교직자, 2022년 4월 22일 면담)

C는 대학에 근무하며 자신과 같은 두 지역 거주자들을 다수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의 확장 거주 지역에 관심을 갖고 유명 음식점이나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장소를 많이 경험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그가 확인하는 것은 지역민이 찾는 공간과 방문객 또는 두 지역 거주자가 찾는 공간이 이원화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제한적인 문화적·정치적 다양성에도 우려하면서 그것이 “꼭 트랜스로컬의 문제가 아니라 로컬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로컬의 현안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트랜스로컬의 시선을 드러냈다. 참여자 X의 경우 각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창작 레지던시에 참가하면서 수 개월 씩 지속되는 두 지역살이를 다년 간 반복했다.

“문화적 차이가 확실히 있고, 그 극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광주에 자리를 잡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의식이 있는 한 그 지역이 대상화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적이 있는 한 그들이 저를 방문객으로 보는 시선도 받지 않을 수 없고요. 그냥 방문과 삶의 거점 변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 그래서 가게를 뚫어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생겼어요. 경험상 슈퍼, 분식집이 가장 무난해요. 말하자면 공략 포인트죠.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현지인 이웃을 사귀기도 좋고 정보를 얻기에도 적합해요. 식당, 술집이면 매일 갈 수가 없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하루에 두 번이라도 들르면서 가볍게 말 섞을 수 있고, 서로에게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어야겠죠.”

(참여자 X, 30대 남, 작가, 2023년 2월 9일 면담)

이 참여자는 청년 작가로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갖고 싶어서 창작 레지던시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예산의 근거가 되는 지역의 지정학적 배경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생소한 지역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생계 수단이 되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주말마다 서울에 돌아오면서 두 지역살이를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두 지역살이를 실행했던 한 지역(광주광역시)에서는 정착까지 고민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중요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지역 거주자들은 한 발만 지역에 붙이고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완전한 내부인으로 인정받기도, 관광객으로도 환대받기도 어려운 처지이다. 이러한 두 지역 거주자의 불분명한 정체성과 혼란한 무경계성은 한 지역에서만 살았던 주민들에게는 외부인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 거주자는 지역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거시전략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부인으로서의 자신을 내부인화하고자 지역사회와 부단히 접촉하여 쌓아나가는 자신만의 커뮤니티 형성이다. 이것은 두 지역살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적 결핍을 상쇄하는 방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공간적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던 부분, 즉 일하는 공간 대 생활하는 공간의 분리를 무마할 수도 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지역의 이른바 ‘맛집’을 탐방하면서 주민과 가까워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존 거주 지역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차별화된 경험을 쌓으려 했다. 음식점 탐방은 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고도 지역의 생활전통과 물산을 익힐 수 있는 방법으로 두 지역 거주자들끼리 추천하는 공간전략이기도 하다. 일부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정기적인 야외활동에

참여하여 내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이곳에서 집이나 땅을 보러 다닌다”, “체육 동호회를 통해 현지인의 시선에서 경관을 체험하고 싶다”와 같은 언급을 통해 드러난 이 같은 노력은 실외 영역에서 그 지역의 풍토와 직접 맞닿고자 하는 공간전략을 가리킨다.

초지역성에 대한 대부분의 지리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장소(place)로서 장소에 관한 분석이 강조된다. 여기서 초지역적 주체가 만드는 장소는 초국가성을 띠는 장소로 대표된다. 이는 고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거나 같은 민족끼리 교류할 수 있는 구역이나 마을로서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지역의 요소를 지금 살고 있는 현지에 작동시킴으로써 고정된 공간 경계에 도전한다. 그러나 두 지역살이에 드리워진 장소들은 그와 반대로 지역 간 이동 및 네트워크의 흐름을 고정되고 영역화된 개념으로 되돌리는 데에 주력한다. 두 지역 거주자들은 확장 거주 지역을 현지인의 시선으로 경험하려는 시도를 하고,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자신을 그 지역의 일부로 환원시키기 위해 실외전략을 구사한다. 비록 한쪽 뿌리이지만 더 깊이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 주민의 입장을 배우고 공유하여 외부인의 이질성을 희석시키고 그 지역에 특화된 정체성을 가지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실외전략은 지역적으로 고정된 장소에 관한 한정된 이해를 극복하고자 확장 거주 지역을 횡단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횡단 속에서 발견된 장소는 이 지역과 다른 지역을 동시에 살아가는 주체가 자신의 흐름을 한 데 모은 결절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여기서 국내형 트랜스로컬 거주는 국제 트랜스 이주에서 발견하는 초지역적 장소와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국제 트랜스 이주자들의 초국적 공간은 국제회의, 팩스와 전자 메일, 금융 거래 등 국경을 가로지르는 초국가적 시-공 압축(Massey, 1994)이나 이국적인 음식적과 거리 장식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교통시설, 경관, 언어, 문화, 기후, 시간대가 이미 통합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역들의 연결로부터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형 트랜스로컬 거주의 장소는 시-공 압축이나 시-공 초월로 상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지역 거주자가 빈번한 이동을 통해 두 지역에 ‘흐르는 동시에 침투하기’를 시도하는 장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계 없는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 구성되었던 관계적 장소 대신 두 지역이 교차되는 동적 환

경이 기존의 장소로부터 새롭게 발현시키는 장소이다. 이렇듯 두 지역살이의 실외전략은 초국가적 장소 관점과 구분되는 초지역적 장소 관점을 보여준다. 이로써 초지역성이 ‘트랜스내셔널’와 ‘로컬’ 사이에 끼워넣은 그 중간의 구간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4. 두 지역살이의 종료

면담 내용에 따르면 두 지역살이의 종료는 그 시작만큼 두 지역 거주자에게 중요한 과제로 등극한다. 특히 장기간 두 지역살이를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경우, 과거의 두 지역살이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은 다음 번 두 지역살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냥 그만두고 올라오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더군다나 생계 때문에 가게 되면 특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돼요. 직장을 털고 나오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지역 리더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지역에서 자만감이 들 수 있어요. 두 번째쯤 가는 지역이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때 앞에 선행된 지역만큼의 준비가 꼭 필요하죠. 저는 청송에서 한 번 대거 후퇴했던 경험 때문에 양구에서는 물건을 최소화했어요.”

(참여자 T, 50대 남, 문화정책 전문가, 2023년 1월 16일 면담)

참여자 T는 두 지역살이의 종료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원활한 종료를 위해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또한 두 지역살이가 연속되면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경험을 밝혔다. 그는 한 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확장 거주 지역의 물자를 축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참여자는 다음 번 두 지역살이를 위해 선행되는 지역에서의 종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지역들이 만드는 새로운 조합에 지나친 자신감을 갖기보다 충분한 준비를 하면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T에 따르면 두 번째 두 지역살이의 난이도가 가

장 높을 수 있고, 자주 지역을 바꾸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적응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도 두 지역 거주자는 이방인으로 왔다가 이방인으로 사라진다는 인상을 남겨 지역 교류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주지 처분 또한 종료 단계의 과제이다.

“이걸 다 가져가면 집이 터질 걸요? 버리기 아깝지만 거의 다 버려야 할 것 같아요. 가져간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오히려 고맙고요. 팔고 싶어도 어디 내놓고 할 겨를이 없어요. 당근마켓 같은 것도 동네에 계속 붙어있는 사람이 쓰는 거죠. 다행히 청소기랑 매트리스랑 큼직한 것들은 가져간다는 사람을 찾았어요. 광주에서 여기로 직장 때문에 왔는데 1년 정도 있을 거라고 해서요. 그 분도 여기서 임시로 지내는 거니까 본격적으로 집을 꾸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가져다가 쓰겠냐고.”

(참여자 Z, 30대 여, 교직자, 2023년 2월 17일 면담)

참여자 Z와 같이 두 지역살이의 종료로 두 거주지를 통합하는 경우 기존 거주지에 모든 물건을 이사시키는 것은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따른다. 그는 아직 쓸 만한 물건들을 폐기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제약이 있다고 한다. 일부 물건을 양도하기 위해 그는 다른 두 지역 거주자를 찾을 수 있었으나, 그보다 많은 물품을 폐기해야 했다. 이 참여자는 폐기 대상과 재활용 대상을 나누고, 재활용처를 찾는 것 자체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인상을 밝혔다. 한편, 인적 관계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하는 면담자도 있다.

“발레 선생님이 서울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멀리서부터 배우러 오는 아이도 있었어요. 제주를 떠나려 결심했을 때 마침 다른 선생님이 서울에서 오셔서 학원을 차린다는 소문이 돌아서 수소문했어요. 저한테 배우던 아이들을 연결해 주고 나왔어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 새로 오신 선생님은 제주도 출신인데 다시 고향이 돌아온 거였거든요. 지방에 전문가, 선생님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더욱 의리를 지키고 잘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노영동에서는

아직 문의 전화가 와요.”

(참여자 Y, 30대 여, 예술강사, 2023년 2월 16일 면담)

최근에 서울-제주 간 두 지역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Y는 자신의 두 지역살이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1기는 제주에서의 정주를 목표로 그 예비 단계로서의 두 지역살이를 시작하면서 물건과 차량을 모두 제주에 옮겼던 시기이다. 2기는 동거자가 다시 서울에 취업하고 본인도 서울에서 생기는 업무를 줄이기 어려워 생활의 절반씩을 두 곳에 분배해야 했던 시기이다. 3기는 두 지역살이 종료로 향하는 과도기로서 차량과 주거지를 처분하고 매번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제주 생활을 축소해 가던 시기이다. 그는 2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지역 주민을 친밀하게 느꼈고, 이들과 깊고 진지한 우정을 쌓고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3기에서도 주민들과의 “의리를 지키며” 잘 마무리하는 데에 집중했고, 요즘도 그들이 서울을 방문하면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는 외지인이 결국 떠나는 것에 많이 서운해 하고 상처를 입는 주민들도 있다며 관계를 잘 이어 나가는 것이 종료의 중요한 과제를 강조한다.

이와 같이 두 지역살이의 종료는 그 준비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접근을 요구한다. 확장 거주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기존 거주 지역으로 통할할 때에는 물자를 이동하고, 폐기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두 지역 거주자들은 물품을 폐기하거나 지역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해 무료로 나누는 방법을 택한다. 여러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이 동일 지역 내의 거래자 간의 연결만을 허용되는 때가 많아 자주 지역을 이동하는 두 지역 거주자가 거래에 참여하기 어렵다. 다음 번 두 지역살이가 예정된 경우 물자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소형 물류 창고를 임대하여 보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두 지역 거주자들은 두 지역살이 종료와 함께 자원순환의 과제를 함께 고민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은 초지역성이 두 지역살이를 실행하는 중에만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두 지역살이를 통해 촉발되는 초지역성은 그 이후의 생활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확장 거주 지역을 떠난 후에도 지역과 지역의 연결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한다.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초지역적 네트워크는 여기에도 살고 있고 동시에 저기에도 살고 있는, 흔히 “I am here and I am there”로 요약되는 이주 네트워크를 칭한다. 국경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지구화는 사실상 로컬들 간의 연계로 이루어져 있고(Dirlik, 2010), 초국주의가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조명했던 이주를 지역 대 지역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초지역주의의 주장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걸음 더 멀리 관찰하여 국내에서의 ‘부분 이주’를 관찰하는 데에 초지역주의를 활용하였고, 이를 두 지역을 오가며 살아가는 거주 양식에 대입함으로써 초지역주의를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두 지역살이는 출신국이나 정착국 어느 한 곳에만 붙박힐 수 없는 트랜스 이주자의 삶처럼 기존 거주 지역에도, 거기서 분기된 확장 거주 지역에도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끊임없이 두 지역을 실체와 기억, 가족과 일, 떠난 곳과 돌아갈 곳 등으로 번갈아 경험하며 그 관계항들을 연결하는 주체가 된다. 따라서 국제 트랜스 이주를 조명해 온 초지역주의의 분석 단위를 국내 지역으로 전환하여, 두 지역살이를 국내화된 초지역주의로 제안한 것이 이 연구의 이론적 함의이다.

지방소멸 시대에 우리나라의 생활인구,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은 지역에 정착하지 않아도 체류를 통해 지역 간 관계를 생성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촉발시켰다. 전북 완주군 ‘청년완주살이<sup>16)</sup>’, 전남 신안군 ‘로빈슨크루소대학<sup>17)</sup>’과 같은 아이디어는 지역에 와서 살지 않아도 좋으니 지역을 익히고 경계를 자주 넘나들기를 바라는 지방정부의 바람이 담겨 있다. 이것은 일견 두 지역살이와의 점점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지역살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서 연원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두 지역살이가 개인의 성취, 취업, 가족 돌봄 등 사적 영역에서 펼쳐진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비공식적 생존전략으로, 초지역주의를 문제적으로 환

16) 청년에게 숙박, 청년 교류 프로그램 제공하여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

17) 섬 문화나 정서를 모르는 사람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섬살이 전문교육센터

기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지역 거주자는 특정 계급의 가족과 직업이 한 지역에서 양립할 수 없는 불완전성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고학력’ ‘엘리트’ ‘화이트칼라’ 계급으로 지칭되는 상위권 고등교육자는 서울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들이 겨냥하는 전문화된 고급 일자리는 수도권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지방도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기관, 정부기관을 유치하면서 우수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들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장되어 나가거나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서울에서 경기·인천 지역으로 향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 거주 지역이 담당하던 가족의 편의나 문화적 이점을 포기할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거주분열이 발생한다. 그 절충안으로 출현하는 두 지역살이는 말 그대로 기존의 거주지와 추가된 거주지를 오가며 사는 생활로 두 지역 간 꾸준한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된다. 두 지역 거주자는 가족, 재산, 직업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두 지역에 서로 다른 중요성을 배분하며 각 지역에서의 체류 비율을 조정한다. 이들이 각 지역에 느끼는 소속감이나 이동과 체류를 조정하는 양상에 따라 두 지역 거주자를 유형화할 수 있었다.

두 지역 거주자의 유형화는 이 연구가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참여자 면담을 통해 도출한 중요한 성과다. 먼저 이 연구는 초지역적 거주를 목적과 상·하향식 구분에 의해 나누고, 초지역적 거주의 전체적 지형 안에서 두 지역살이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두 지역살이는 국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관계인구와 유사해 보이지만 생존전략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국제 트랜스 이주 개념에 더 근접해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은 면담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었다. 그리고 면담자들의 특징을 통해 두 지역살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이들이 두 지역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존 거주 지역 우선형’과 ‘확장 거주 지역 우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체류와 이동을 어떻게 계획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정기이동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지역의 관계는 중심 거주지인 1차 거점과 보조 거주지인 2차 거점의 관계로 요약된다. 두 지역 거주자가 어느 곳을 1차 거점으로 정하는지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결정한다. 가족, 재산, 직장이 그것이다.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들이 향유하는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족의 안전과 발전을 평가하는 잣대이다. 재산은 집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 투자 목적의 물적 대상, 그리고 차량, 가구, 전자제품, 도서 등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물질적 소유품을 의미한다. 이것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는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두는지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확장 거주 지역에서의 주택 매입을 계기로 소속감이 증진되어 원래 2차 지역이었던 이곳이 1차 지역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직장은 두 지역살이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두 지역살이 이후 그곳에 정착하겠다는 동기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소속감의 정도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끊임없이 유동적이라서 출신지와 정착지가 분절되지 않는 트랜스로컬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두 지역살이를 결심할 수 있게 하는 교통망, 유연근무, 소득 수준, 가족의 뒷받침은 지역의 경계를 벗어난다는 부담을 경감한다. 연구를 통해 이것이 국내형 트랜스로컬리티의 작동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이들이 국내 두 지역살이를 통해 재구성하는 초지역성은 경험하는 관계적, 물질적, 그리고 시간·공간적 측면에서 확인된다. 관계적 측면이 낡은 결핍감은 '여기'에도 있지 않고 '저기'에도 있지 않는다는 장소감으로 이어진다. 물질적 측면에서의 두 구체적 거점 관리는 '여기'에 있는 동시에 '저기'에도 있다는 의식으로 발현되어 두 거점을 조화시키게 된다. 시간·공간적 측면은 이동성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여기'와 '저기'가 아닌 제3의 공간을 동원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초지역적 경험은 공간전략과도 결부된다. 두 지역 거주자들은 공간전략을 통해 기존 거주 지역과 확장 거주 지역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두 거주 지역 사이의 이동과 물자 관리에서 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며, 생활비가 증가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역과의 교감으로부터 발견하려 노력한다. 이와 같은 노력 무대는 확장 거주 지역에서 두 가지 스케일로 펼쳐진다. 미시적으로는 거주지 내부이며 거시적으로는 주민과 접촉하는 동네이자 지역사회이다. 미시전략은 집 꾸미기로서 기존 거주 지역을 보조하거나 가족의 휴식처를 생성하여 관계적 측면의 결핍을 보완한다. 이동 장애 최소화는 물질적 측면의 단점과 연결 지을 수 있다. 거시

전략은 이웃 만들기로서, 확장거주 지역에서 새로 형성된 관계로 기존 관계의 결핍감을 보상 받는다는 점에서 관계적 측면의 단점을 보완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시간·공간적 효율성은 소거될 수도 있다. 이렇듯 두 지역살이의 공간전략 상에서 재확인되는 영역별 장단점은 각기 분리된 스케일이 아니며 상호보완적이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기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이 연구는 국내 초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 국내에서 초지역적 거주를 행하는 참여자들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초지역주의의 지평이 확장되었다. 오늘날의 로컬은 글로벌의 상대적 개념이었던 로컬에서 발전되어 이웃 지역과의 미세한 차이를 포괄한다. 따라서 트랜스로컬 역시 한 국경 안 지역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단위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는 국가 간의 거시적인 지역 이동에서 미시적인 단위에서 두 지역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례로 기존 개념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형 초지역주의를 구축하고 이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둘째, 이 연구는 기존의 초지역성 개념을 세분화하여 국내화된 관점을 재구성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국내의 고유한 지리적 조건에 의해 밀도 높은 이동을 수행하면 그에 따라 장소 중심의 초지역성을 경험하였다. 연결성, 다중중심성, 시-공 압축성, 참여자 다양성,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초지역성의 속성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두 지역살이에서는 이러한 속성들이 새롭게 조합되어 두 지역살이 경험의 특정한 영역들을 대표하는 세 가지 초지역성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점은 초지역주의가 분석 스케일에 따라 고유한 강조점을 갖고, 장소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이 연구는 초지역주의의 전략적인 측면을 상세히 조명하였다. 초지역주의는 이미 '여기'와 '저기'를 모두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이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과 구체적으로 적용된 전략들을 분석하여 밝혀냈다. 두 지역살이의 전략은 주로 미시전략과 거시전략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거주자만의 공간인 거주지 내부와 지역사회와 접촉하는 거주지 외부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두 지역살이의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초지역주의의 기존 적용 범위를 국내 단위로 좁힘으

로써 이론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국제적인 이동과 국내 이동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다루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에 기여한다. 최근에는 COVID-19와 같은 글로벌한 위기 상황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동성의 양상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의 거주 방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찰하는 데에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국내 초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국내의 한 방송은 의과 대학 지원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입시 판과 달리, 전문의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지방의 실정을 조명하였다<sup>18)</sup>. 2022년 경남 산청군은 연봉 3억6000만 원에 산청군보건의료원에서 일할 내과 전문의를 구하는 공고를 냈다. 그러나 산청군이 제시한 높은 연봉에도 공고문 시행 10개월 동안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분이 가족을 이루고 자기의 어떤 경력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가족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되니까 의사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문화방송 PD수첩, 2023. 5. 23. 방송)

지방이 겪고 있는 이러한 전문 인력 부족난은 이 연구의 두 지역 거주자와의 비교를 통해 고찰할 만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전문 지식과 고급 경력을 바탕으로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상당수가 교직자와 연구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방학이나 유연근무가 초지역성을 가능케 하며, 초지역적 거주가 지역 참여를 돕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수뿐 아니라 근무 여건과 이동 편의, 거주 편의 등을 고려하여 초지역적 거주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지방의 어려움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생활인구 시대에 초지역적 거주를 위한 조건 형성에 많이 관심이 필요하다. 생활인구가 늘어날수록 국내에도 다양한 초지역적 거주 사례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지역살이는 바로 그러한 사례이자 첫 번째 연구

18) 문화방송 PD수첩, 2023. 5. 23.

대상으로 본고에서 초지역주의의 영역으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두 지역살이의 특징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두 지역살이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서술이 있었고, 워킹맘 두 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소요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성별의 문제는 이번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간 ‘떠돌이’ 썸으로 취급되던 두 지역 거주자의 생활을 국내형 트랜스로컬 거주로 개념화한 점이다. 둘째 이동성, 직주분리, 지방인구 등 인접한 주제들 사이에서 아직 고찰이 미진했던 연구 주제를 제시한 점이다. 셋째 두 거점 원격 관리를 위한 도시 기술, 부분 이주를 돕는 법적 기반, 지방 일자리와 근무형태의 다양화 등 도시와 지역의 미래에 관련된 정책 논의에 지리학자들의 참여를 환기한다. 이후 지리학계의 적극적인 연구가 뒤따르기를 희망한다.

## 참 고 문 헌

- 구동희. (2004). 도시탈출이 생활양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리학회지*, 39(1), 102-115.
- 구혜경, & 조희경. (2015). 주거가치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주거선호 연구- 주택 구입 예정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5(2), 37-64.
- 권상철. (2005). 우리나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71-584.
- 김감영. (2010). 연령별 인구이동 특성에 대한 탐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 (ESDA) : 대구시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5), 590-609.
- 김광기. (2009). 대면적 상호작용, 기러기 아빠, 그리고 이방인 : 가족의 친밀성 변화에 관한 사회현상학적 소고. *현상과 인식*, 33(1), 172-203.
- 김성숙. (2006). 기러기아빠의 생활 변화와 적응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41-158.
- 김슬기, & 최형재. (2020). 자녀의 분거가 부모-자녀 간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4), 199-229.
- 김정섭, 신소희, & 구분경. (2018).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서울시 청년허브 용역보고서*.
- 김주현, 송민경, & 이현주. (2010). 기러기 아빠의 분거가족 결정과 유지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107-133.
- 김태일, & 양혜연. (2022). 인구이동의 지역 및 연령별 특징분석 - 2010년~2020년 국내인구이동의 세대자료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2(2), 89-92.
- 이상림. (2009).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 이동. *한국인구학*, 32(3), 43-72.
- 신혜란, & 진예린. (2021). 지리학적 행복 연구 -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관한 북유럽 사례 질적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6(5), 465-484.
- 이영민. (2012). 한국인의 교육이주와 트랜스로컬 주체성: 미국 패어팩스 카운티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1), 1-16.
- 이영민. (2013). 글로벌 시대의 트랜스이주와 장소의 재구성. *문화역사지리*, 25(1), 47-62.
- 이은하, Rui Wang, & 김광익. (2019). 조선족의 국경 간 이동과 초국적 실천

- 에 관한 연구: 중국 연길 음식거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3), 73-82.
- 정현주. (2010). 대학로 '리틀마닐라' 읽기 :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95-314.
- 조대현. (2021). 우리나라 도시 축소의 인구 요인 및 특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1), 29-44.
- 조영재, & 윤정미. (2019). 과소지역 농촌마을의 공간적 재편에 관한 정책사례 및 주민의식조사 연구. *충남리포트*, 341호, 295-314.
- 차미숙. (2021). 지역활력 증진과 '관계인구' 활용, *국토*, 98-105.
- 최병두. (2017). 관계이론에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으로: 초국적 이주 분석을 위한 대안적 연구방법론. *현대사회와 다문화*, 7(1), 1-47.
- 최성은. (2018). 세종시 읍면 동별 인구 이동 변화와 그 시사점. *세종인사이트*, 2018 Vol. 2, 9.
- 최슬기. (2015).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경제와 사회*, 106, 14-40.
- 하혜영, & 류영아. (2022).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013호.
- 한유미. (2004). 맞벌이 주말부부와 홀벌이 주말부부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4), 137-148.
- 황정임, 최윤지, 원지윤, & 김대규. (2010). 일본의 도시민 농촌 정주 촉진 전략. *농촌지도와 개발*, 17(3), 447-474.
- Ajefu, J., & Ogebe, J. (2019). Migrant remittances and financial inclusion among households in Nigeria. *Oxford Development Studies*, 47(3), 319-335.
- Andersson Djurfeldt, A. (2021). Translocal livelihoods research and the household in the Global South - A gendered perspective. *Journal of Rural Studies*, 86, 16-23.
-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 Arjun Appadurai*.
- Brickell, K., & Datta, A. (2011). *Translocal Geographies : Spaces, Places, Connections / Edited by Katherine Brickell ; Ayona Datta*.
- Carpentier, N. (2007). Translokálnost, mediji zajednice i grad [Translocalism, community media and the city]. *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ly*, 2(4), 57.
- Collins, F. (2012). Transnational mobilities and urban spatialities. *Progress*



- in *Human Geography*, 36(3), 316–335.
- Cresswell, T. (2004). *Place : A Short Introduction / Tim Cresswell*.
- De Haas, H. (2010). Migration and Development: A Theoretical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4(1), 227–264.
- Arif Dirlik. (2010). Special Theme : Transnationalism in Theory and Practise: Uses, Mis–Uses, Abuses. *Studies in Urban Humanities*, 1, 9.
- Faist, T. (2000). Transna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citizenship and culture. *Ethnic and Racial Studies*, 23(2), 189–222.
- Florida, R. (2004).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 Richard Florida*.
- Gielis, R. (2009). A global sense of migrant places: Towards a place perspective in the study of migrant transnationalism. *Global Networks (Oxford)*, 9(2), 271–287.
- Gorman–Murray, A., & Bissell, D. (2018). Mobile work, multilocal dwelling and spaces of wellbeing. *Health & Place*, 51, 232–238.
- Greiner, C. (2010). Patterns of Translocality: Migration, Livelihoods and Identities in Northwest Namibia. *Sociologist*, 60(2), 131–161.
- Hedberg, C., & Do Carmo, R. (2012). Translocal Ruralism: Mobility and Connectivity in European Rural Spaces. In *Translocal Ruralism* (Vol. 103, GeoJournal Library, pp. 1–9). The Netherlands: Springer Netherlands.
- Kvale, S. (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 Steinar Kvale*.
- Levitt, P., & Schiller, N.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002–1039.
- Li, J., & Xu, H. (2023). Place attachment and mobility in the context of job-induced multilocal dwelling—The case of China. *Population Space and Place*, 29(3), N/a.
- Long, N. (2008). Transnational livelihoods, organizing practices and social remittances in central Peru. *Revista Colombiana De Antropología*, 44(2), 337–372.
- Lubbers, M., Verdery, A., & Molina, J. (2020). Social Networks and Transnational Social Fields: A Review of Quantitative and

- Mixed-Methods Approache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54(1), 177–204.
- Ma, E. (2002). Translocal spati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5(2), 131–152.
- Massey, D. (1993). Power–geometry and progressive sense of place, In: J. Bird, B. Curtis, T. Putnam, G. Robertson, & L. Tickner (Eds.), *Mapping the futures*.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 Doreen Massey*.
- MacLure, M. (2013). Researching without representation? Language and materiality in post–qualitative method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26(6), 658–667.
- Mitchell, K. (1997). Different Diasporas and the Hype of Hybrid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5(5), 533–553.
- Moskal, M. (2015). ‘When I Think Home I Think Family Here and There’: Translocal and Social Ideas of Home in Narratives of Migrant Children and Young People, *Geoforum*, 58, 143–52.
- Portes, A. (1984). The rise of ethnicity: Determinants of ethnic perceptions among Cuban exiles in Miami,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3–397.
- Rapport, N., & Dawson, A. (1998). Opening a debate. *Migrants of identity: Perceptions of home in a world of movement*, 3–38.
- Rau, H. (2012). The ties that bind? Spatial (immobilit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rural–urban Connections. In: C. Hedberg and M. do Carmo (Eds.), *Translocal ruralism mobility and connectivity in European rural spaces*, 35–55.
- Reetz, D. (2010). ‘Alternate’ globalities? On the cultures and formats of transnational Muslim networks from South Asia, In: U. Freitag and A von Oppen (Eds.), *Translocality: the study of globalising processes from a Southern Perspective*, 293–334.
- Sassen, S. (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r Flow / Saskia Sassen*.
- Schiller, N., Basch, L., & Blanc–Szanton, C. (1992). Transnationalism: A New Analytic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igra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45(1), 1–24.

- Schiller, N., Basch, L., & Blanc, C. (1995).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48–63.
- Glick Schiller, N., & Salazar, N. (2013). Regimes of Mobility Across the Glob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9(2), 183–200.
- Shin, H. (2017). Joseonjok and their evolving roles as mediators in transnational enterprises in Qingdao, Chin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6(1), 108–127.
- Smith, M. (2001). *Transnational Urbanism : Locating Globalization / Michael Peter Smith*.
- Pikner, T., Pitkänen, K., & Nugin, R. (2023). Emergent rural-urban relations in Covid-19 disturbances: Multi-locality affecting sustainability of rural change, *Sociologia Ruralis*, 2023.
- Verne, J. (2012). *Living translocality : Space, culture and economy in contemporary Swahili trade / Julia Verne*.
- Weissköppel, C. (2013). Translocality In Transnational Space: Sudanese Migrants In A Protestant Church in Germany, *Urban Anthropology and Studies of Cultural Systems and World Economic Development*, 42(3/4), 255–303.
- Zapata, G. (2018). Transnational migration, remittances and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in Colombia. *Housing Studies*, 33(3), 343–360.
- Tanaka, 윤정구, & 조희정. (2021). 인구의 진화 :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관계 인구 만들기 / 다나카 데루미 지음 ; 윤정구, 조희정 옮김.
- 小田切徳美, 広井良典, 大江正章, & 藤山浩. (2016). 田園回帰がひらく未来 農村再生の最前線.
- 嵩和雄. (2017). 地方移住の現代的意義: 移住相談から見る田園回帰. NPOふるさと回帰支援センター.

## Web 자료

- 통계청. (202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통계청 인구 동향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11). 201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 통계청. (2016).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 통계청. (2021a).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 통계청. (2021.).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 통계청. (2022a). 2022년 연간 국내이동 보도자료.
- 통계청. (2022b). 2022년 혼인 이혼 통계.

## 신문기사

- 노컷뉴스, 2022. 9. 15., 20여년 간 41개 학교 문닫은 신안...“공공인프라 길게 보고 심어야”, <https://www.nocutnews.co.kr>.
- 더리더, 2022. 12. 1., 지역과 관계 맺는 '생활인구'를 늘려라, <https://mt.co.kr>.
- 영주시민신문, 2022. 11. 18., 10만 인구 붕괴 '눈앞', 인구감소 해결방안은, <https://www.yjinews.com>.
- 한겨레, 2023. 2. 14., 월급에 세어하우스 지원까지...전북 완주로 청년이 몰린다, <https://www.hani.co.kr>.

## Abstract

# The Translocality in Dual–Location Dwelling: Exploring Types and Strategies

Kim Boseul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henomenon termed as ‘dual–location dwelling’ in Korean. It refers to a residential pattern where individuals have separate residences in two different areas, away from their original place of residence, and regularly travel between the two locations for work and living. In countries like South Korea, where a relatively small territory is equipped with high–speed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 convenience of mobility is enhanced, this phenomenon can be easily spread by the efforts of individuals seeking greater economic and cultural opportunities. This study examines such a lifestyle in recent cases and conceptualizes it as domestic–scale translocal residence. Translocal residence generates relationships that transcend geographical limitations, and individuals who adopt this form of living take charge of at least two focal points and become part of multiple regions. This study investigates domestic translocal residents involved with the Greater Seoul area who have one residence in Seoul or its metropolitan region and another in a lower–tier area.

As an example of translocal residence within a country, it is

worth looking to the proliferation of 'relational population,' the publicly introduced concept in Japan. This study briefly examines whether there are other countries with such partial residence pattern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dual-location dwelling, which are based on individual desires and survival strategies, has a different starting point from the government and society-led movements. This study employ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case subjects, an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dual-location dwelling primarily occurs when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location of family activities and occupational activities. Dual-location dwellers often compete for a limited number of highly educated white-collar or research positions and are typically in the middle-aged group with established careers and social positions. Therefore, dual residency is likely to be a result of residential disunity based on a series of class backgrounds.

Secondly, dual-location dwellers classify their two residential locations into two priority levels based on the sense of belonging, and the three main determining factors are family, property, and occupation. Through this classification, dual residents adjust the frequency of commuting and the time spent in each location. This study categorizes these types to grasp specific aspects of dual-location dwelling. However, the ranking is not always clear and can change depending on the duration of the lifestyle.

Thirdly, the translocal features among the dual-location dwellers are experienced through three main aspects: relational, material, and temporal-spatial dimensions, leading to spatial strategies at two levels. They encounter a relational deficiency, not belonging entirely to 'here' or 'there,'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the two regions. Moreover, they seek material harmony by establishing their residences in both regions, embracing a consciousness of being present 'here' and 'there' simultaneously. They also seek

temporal–spatial efficiency by navigating a third space, neither 'here' nor 'there,' to mitigate the impact of constant mobility. Based on this, the residents in both regions adopt a series of spatial strategies. Among them, micro–strategies involve the practical management of interior spaces within their residences, while macro–strategies entail building a sense of community within the local society by constantly engaging with the residents to integrate themselves as insiders despite being outsiders.

The concept of translocalism, which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the network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which social relations appear in one place and are bonded to other places, has contributed to the analysis of domestic cases in this study, expanding its scope. By understanding the patterns and execution types of dual–location dwelling revealed in specific cas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stabilizes translocal residence as a residential form. Therefore, it can trigger discussions and provide insights into the institutional adjustments and cultural transformations necessary for population exchanges and local participation.

**keywords : dual–location dwelling, domestic translocalism,  
translocality, spatial strategy, residential disruption**

***Student Number : 2021–23282***